

社說

학자투는 민족동국의 필수요건

불교계 선각자들의 보사를 통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본교가 올해로 개교 8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초 설립자로부터 외세의 결탁이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학의 위상을 세우는 본교에서 학원자주화 투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찌보면 민족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필연일수도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지배권력의 계속되는 탄압속에서 학원의 자주화·민주화는 사라지게 되었고 특히 민족대학인 본교에 이러한 관지배이데올로기가 학원내에 어용·인맥파벌을 조장하였던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인식할 때인 것 같다.

본교에서는 지난 88년도 학자투가 전개된 때 그해 6월24일 학교당국·교수·학생대표들이 모여 최초의 학자투 8개항을 합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이후 나타난 상황들은 그야말로 학자투가 무엇인가 라는 점을 더욱 확실히 하게 되었다.

학원의 집행권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고집하는 속에서 인맥을 발견했고 어용을 고집했고 자주화된 학원의 학내·사상의 자유로움을 찾아내게 되었다.

각급의 본교상황은 개교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부정입학사건 이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

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민주총장선거는 본교를 올바른 시각에서 이끌고 나갈 중도적이고 개혁의지가 투철한 인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학자투의 총체적인 내용들을 총장선거를 통해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은 학자투의 전면적 재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간 2년여의 학자투 경험은 실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학교당국의 권위주의적 자세는 아직껏 침체동국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수회의 비주체적 자세는 학원의 한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상실케 하여 학교당국=교수주, 교직원=사용자의 구태의연한 사상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다.

민족동국이 이대로 주저앉느냐, 도약하느냐는 바로 올해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지난해 부정입학사건이후 본교는 설립 이래 최대위기에 처해 있어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주체적으로 고민하여 아파하는 주인의식을 발휘할 때이다. 재단·중앙·학교당국·교수·학생·직원·동문 모두 학자투의 순수함을 믿고 화합 동참할 때인 것이다.

광주총회를 사수하자

오는 18일은 2천여 광주민중들이 꽃잎처럼 금남로에 피를 뿌리고 산화해 간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전대투와 제 민주단체는 오는 19일과 20일 광주에서 학생총회와 민중대회를 각각 연다.

우리는 현 정세에서 광주학생총회와 민중대회는 다른데와 달리 여타단체에서 증차대회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현 정권의 장기집권모욕과 두개의 한국조작책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통틀린 3당이 오늘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전당대회를 연다.

3당통합이후의 민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한 민생고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개량적인 경제민주화 조치를 위해 보여준 민주적 경계선이 '정당위주'의 이성을 경계선으로 대체되면서 그야말로 최악에 다다르고 있다.

전세값의 폭등으로 인해 안타깝게 자살을 하는 국민대중들이 줄을 잇고 있다. '매판자본가들의 부동산 투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닿았다. 증권시장에는 공황이 일어, 심지어 증권투자가 조차도 노태우 정권퇴진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지난 4월3일 유성·전철 및 대구서감구에서 보여준 국민대중들의 민주당에 대한 저항은 이를 어느정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

겠다. 한편, 정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음모에 맞서 방송민주화를 선언하고 88일 제 농성을 벌이는 KBS사원들과 MBC, CBS, 언노련등의 일사재적거부 움직임,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죽음을 불사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이에 대한 동맹파업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출범등은 정세를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는 19일과 20일에 있을 광주총회와 민중대회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나 미국에서 있어 광주학생과 5공비리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우리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그동안의 각 부분에서의 자주적 진출을 광주학생 10주기를 계기로 전국민적 연대투쟁으로 승화, 현정권에 일대 반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5월 광주총회 사수투쟁은 민주당 창당이후 정부로부터 이반된 조취와 맞지 못하고 유폐하는 국민대중을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묶어 새우고, 반의외설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민주대연합 건설의 단초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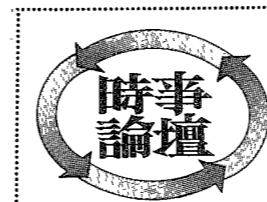
5월 그날이 다시오면 우리가슴엔 붉은 피가 솟는다!

장기집권 획책하는 민자당의 행로

"국민연대로 거대독재정권타도를"



朴 燦 鍾 (국회의원·(가칭)민주당)



이 군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보안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때 보안사령관이 노태우씨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5·17군사쿠데타와 광주항쟁이 발생한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해마다 5월이되면 학생이나 정치인이나 모두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했지만, 10년이던 강산도 변한다는 데 80년대가 90년대로 바뀌어도 광주문제에 관한 한 번란케 하나도 없다.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그리고 민정당에서 민주당으로 걸모습만 바꾼 군사 권위주의자들이 실상은 본질 그대로 그 인물 그대로 80년대 초반의 공포정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 일까?

12·12로 군권(軍權)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5·17로 국외와 행정부까지 장악한 이후 국보위를 조직하여 최초로 행한 일이 공산정파와 인본통폐합이었다.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기관

총재들은 청와대에 모여 5공정산과 광주문제해결은 모두 끝났음을 선언하고 마지막 정치의 의미로 백담사에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을 국외에 불러 정문회를 개최하였다.

12·15청와대회담과 전두환씨 국외송환은 분명히 한시대를 마감하고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였다. 우리는 그것이 80년대의 지난해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마감하고 이제는 희망찬 민주주의 90년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권위주의세력이 87년 6월항쟁으로 대포되는 시민주의의 성장을 봉쇄하고 일당독재의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었다.

여하튼 5공화국은 5·17쿠데타와 광주항쟁, 민주세력에 대한 이러한 탄압의 과정을 거쳐 쿠데타 주역이 만든 임의 기관 국보위에서 일관한 헌법

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가 무기연기되었고, 광주배상법안 논의가 미루어졌고, 지자체 실시도 연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KBS前사장 서영준씨를 수당지출을 빌미로 해임시키고 서기원씨를 임명시키려는 과정에서 KBS사태가 발생했다.

노동법을 더욱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정부일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해 제법 경영주는 협상의 자리도 만들지 않은 채 공권력을 투입시켰다.

그동안 방송민주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KBS에 대한 탄압은 거대여당의 인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초 독재정권의 통치기

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가 무기연기되었고, 광주배상법안 논의가 미루어졌고, 지자체 실시도 연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KBS前사장 서영준씨를 수당지출을 빌미로 해임시키고 서기원씨를 임명시키려는 과정에서 KBS사태가 발생했다.

노동법을 더욱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정부일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해 제법 경영주는 협상의 자리도 만들지 않은 채 공권력을 투입시켰다.

그동안 방송민주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KBS에 대한 탄압은 거대여당의 인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초 독재정권의 통치기

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가 무기연기되었고, 광주배상법안 논의가 미루어졌고, 지자체 실시도 연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KBS前사장 서영준씨를 수당지출을 빌미로 해임시키고 서기원씨를 임명시키려는 과정에서 KBS사태가 발생했다.

노동법을 더욱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정부일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해 제법 경영주는 협상의 자리도 만들지 않은 채 공권력을 투입시켰다.

그동안 방송민주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KBS에 대한 탄압은 거대여당의 인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초 독재정권의 통치기

정치비판·감시자 역할도 학생의 임무

노동법개악-KBS 탄압등은 야합의 산물

에 따라 쿠데타 주역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으로 성립되었다.

그뒤 5공화국은 5공비리라고 불려지고 청문회에서 도마위에 당하는 각종 부정부패와 독재·폭정으로 명맥을 이어오다 결국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작년 12월15일 당시 4당의

전두환씨가 과거 권위적 대동맹시절의 기본을 한껏 실향국회원과 국민들을 향해 일장연설을 하고 간 후 맞이한 세상은 국민에게는 충격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3당의 야합으로 민주당이 탄생하였고, 전세값이 뛰어 생활비판으로 심수명이 자살하였고 주시경이 폭파하였으며, 금융

반을 언론통폐합을 통해 다져 나갔듯이, 민주당은 KBS를 다시 장악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오도하여 내각제헌과 장기집권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는 듯하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육해공 삼면 진압작전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있다. 전문적인 학생의 역할을 살려, 정치에 대한 비판자·감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야권이 통합되고 민주세력이 단결하여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적 대안책이 창출되는데 일조해주길 바란다.

장 선 주 (자연대·가정교육학과)

동역 기사석

제6대 여학생회에 바란다

취업·전문분야특강등 시급

“자주적·실천적·개성있는 제6대 여학생회(이하여총)”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제6대 여학생회가 온방끝에 출범한지도 이 2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과연 이 민주적이고 자립적인 슬로건에 걸맞는 맹활약을 우리의 여총이 얼마나 펼쳐보이고 있는지 의문을 느끼며 동국의 한 여학우로 여총의 현재활동에 안타까움을 느껴 제6대 여총을 바라보는 심정에 서 몇자 적는다.

언제나 선거유세와 공약으로 학원내의 남녀평등, 여성해방의 문제등을 내세우며 여학우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자주·해방과 이에 부파되는 여학우 자신의 실천적 자각과 주체적 참여를 부르짖지만 일단 선출되면 역대의 여총은 스스로 안일하게 “여자인가?”하는 소극적·피해적 관념에 사로잡혀 동국의 여학우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간 자기모순적 행동을 거듭해 온것이 사실

정당하고 이런 방향으로의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모색, 실시등을 통해 여학우들을 이끌어 나가기 한다고 느낀다.

우선, 이런 방향의 다각적사업으로, 여학우의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특강,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등의 취업홍보사업과, 여학우의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한 심도있고 전문적인 특강, 강좌, 대학원진학, 여성자격증 취득을 위한 Study Group육성,

등서, 서평, 독후감발표회, 여성문제나사국등에 대한 경토론회, 여학생유계실의 활성화(즉 잡지류에, 사회과학도서 비치, 공강을 넓혀 많은 여학우가 이용가능케)등이 급선무라 하겠다.

물론 처음에는 과중한 사업으로 인한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도 야기되었지만 이 같은 현실처럼 여총과 여학우가 유지되어 상과 소의된 현상을 막는 길이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는 자신있고 적극적인 여성,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뚜렷이 설 수 있는 자립적인 여성이 될 열망하는 동국의 많은 여학우들에게 여총이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는 지포가 될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장 선 주 (자연대·가정교육학과)

‘하루쉬는’ 파업 언제까지 계속되나

충분한 토론으로 대중적 의식공유 확산돼야

지난 5월 3·4일 이틀간 동국내에서는 파벌 파업이 가열차게 진행되어 한차례의 유행처럼 동학을 휩쓸고 지나갔다.

민자당창당 반대 및 5월1일의 May-데이 연대투쟁을 목적으로 파벌 토론을 거쳐 전과 또는 각학년별 파업결의가 모아졌다. 결의결과를 즉각 대자보로 나붙여 ‘아무개’와 ‘아무개’의 파업결의이란 대자보를 동양의 건물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3일과 4일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그러나 정작 3일과 4일이 되어 파해는 조용하기만 했다.

물론 단대별 파벌 집회라든지 토론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전날 나붙은 대자보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였다.

파업을 결의한 학생들을 파업당일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파업을 하면 수업은 안하니까 ‘늘러가자’로 전도된 것이었다. 충분한 토의가 거쳐져 파업을 결의했으면 그 당일부터 최소한 토론장에는 진행되어야 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학우들의 의식공유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듯한 파업으로 그냥 하루를 공지는 것은 올바른

지성인으로서의 자제가 결코 아니다. 결의가 모아지지 않았으면 수업을 해야할 것이고 결의후 파업이 되면 실천하는 파업이어야 한다.

9일에도 대규모의 파업이 있다.

하루쉬는 파업이어서는 안된다. 나서는 토론하고 행동하는 파업이어야 한다. 또다시 파업날 썰렁한 학교가 되지 않도록 생각하여 실천하는 대학원이 되어야겠다.

문 등 은 (문과대 영문과)



東國漫評

東大新聞 창간40주년 自祝宴

대학언론 창달에 앞장서온 東大新聞이 지난 4월15일로 창간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민족자주언론의 기수임을 자임해온 東大新聞의 더 큰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축연을 가지오니 많은 지도 분 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1990년 5월 10일(목) 오후 6시30분
2. 장소: 소피텔 엠베서더 2층 동궁홀
3. 감사패 수여 동인 명단:

- 李鍾出(前 세종대 총장)
- 林德圭(前 국회의원)
- 梁榮燾(중앙일보 사진부장)
- 朴大鎬(KBS 뉴스 앵커맨)
- 李春滿(사업)
- 金衡均(불지사 대표)
- 尹範模(미술평론가)
- 韓萬洙(문학평론가)

1990년 5월 일

東大新聞社

영어수필경시대회 개최

영자신문 The Dongguk post에서는 학부생들의 영어표현 능력을 장려하기 위해 제5회 영어수필경시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1990년 5월 24일(목) 오후 5:00
2. 참가자격: 본교 학부 재학생
3. 신청기간: 1990. 5. 7~5. 24 오후 5시까지
4. 신청서배부: The Dongguk post 편집부(학생회관 지하1층)
5. 시상종목: 최우수작 1편(상장 및 상금10만원) 가 작 2편(상장 및 상금 각 5만원)
6. 심사위원: 본사에서 따로 위촉함.

*기타 자세한 것은 The Dongguk post 편집부로 문의바랍니다.

1990년 5월 일

The Dongguk Post

교직원 정기법회 안내

동국학원에 봉직하고 계시는 동국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한량없는 복덕과 자비의 손길이 항상 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이번 5월 교직원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제1주 월요일 오후 3-4시 과·부장법회(5.7)
- 제2주 " " 주입법회(5.14)
- 제3주 " " 남자직원법회(5.21)
- 제4주 " " 여자직원법회(5.28)

2. 장소: 정각원 법당
3. 대상: 전 교직원

정각원장

독자보충역 복무기간 단축제도 폐지에 따른 안내

◇단축제도 폐지 변경 1990년도 중반부터 병역자원의 부족이 예상되며 가족계획의 정착으로 독자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음.

◇관계법령 개정시기 1990년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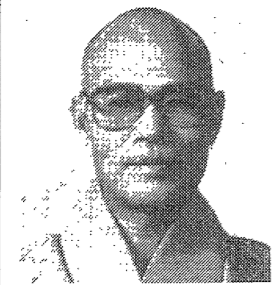
◇적용대상 197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독자부터 적용

1990년 5월 일

서울지방병무청장

재단 이사장 告辭

본교는 우리 민족이 개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한편으로 신교육의 바람이 이 나라를 휩쓸던 때인



1906년에 불교계 선각자들이 정체를 모아 세운 중흥대학입니다.

당시 이 나라의 교육기관은 '교육구국'이라는 높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두가 외국의 선교기관에 의해 세워져 우리의 고등교육이 남의 힘으로 시작되는 민족적 비극과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온갖 박해를 받아 오던 불교계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를 세웠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될 것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본교야말로 민족에 의한 민족의 대학임을 자신 있게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교가 걸어온 길은 개교 직후에 붙여준 仁國의 쓰라림과 3·1 독립운동으로 인한 슬픈 희생, 그리고 3차례에

걸친 폐교령으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본교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의연하게 건학정신의 근간을 불교사상과 그 문화에서 구하면서 지혜와 자비의 교육적 이념을 존중, 실천해 왔습니다. 다시말해 본교는 지난 83년동안 '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는 불교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민족과 인류에게 크게 공헌해 온 것입니다.

표현과 방법의 차이는 있을망정 바로 우리의 전통과 자존을 승화시키려는 의지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국중흥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과 성을 한가지 목표로 집약시키는 불문,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니다. 마음은 결코 마음에 의해서

외형과 내실의 조화를 이룩해야

따라서 오늘 우리의 다짐도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올린 빛나는 전통위에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니다.

잘아시다시피 작금의 東國은 내외에 걸쳐 개교이래 가장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끝없는 좌절과 견해차이로 정체의 길을 걷고나, 아니면 화합과 자율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느냐 하는 결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東國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려는 저간의 전통은 그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비로 이해하고 화합함만이 진정한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국은 바로 이러한 이해와 화합의 바탕위에서 외형과 내실의 조화를 이룩해나갈 것 입니다. 재단으로서의 우선 '동국'을 증축하여 강의실 부속난을 해소하는 등 새로운 면학환경이 뒷받침되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또 경주캠퍼스는 부속한방병원, 포항병원, 방배동 한방병원에 이어 외과대학 부속병원

개교 84주년

공을 서둘러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과 의학교육·연구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

이와함께 교수와 학생은 학문연구를, 그리고 직원은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해 이 민족에게 늘 희망을 주는 대학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언제나 그 나라의 민

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이 뜻깊고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본인은 먼저 일제의 침탈이 극심하였던 1906년 교육구국의 이념하에 불국정토와 지구독립의 높은 이상을 구현하고자 전리의 햇살을 높이든 불교계 선각자들의 혜안과 열의에 대해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본교가 쌓아올린 84년의 연륜은 결코 쉽게 잊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수탈과 탄압에 대해 끝없이 저항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성의 최고전당으로서 부끄럼 없는 영예를 욕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독립후에는 조국분단이라는 아픈 현실속에서 통일을

생각하면서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학의 학문 성격 및 진로문제, 타대학 교육학과와의 연대관계, 사회교육 전문위원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개사립학교법, 대학문화와 사제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여흥 '간부전진대회' 학우돕기 모금운동 등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간부전진대회' 기간으로 설정하고 메이데이 동맹휴업과 구속학우돕기 운동을 전개했다.

여흥은 지난달 28·29일은 메이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남부지구 철야농성을 가졌으며, 구속학우돕기 모금운동 전개 및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 현실이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무기력한 발간사의 신음일련의 물라도, 우리 대학의 교정은 실로 참담하기까지 하다. 불상앞에 전을 펴 놓은 보직 교수님들의 집기, 직원의 가슴에 부박된 리본, 도서관 유리창에서부터 각 건물에 흠뻑히 세겨진 옥구 분출의 주의 주장, 빈번히 일어나는 기두 시위에서의 교통 혼잡등은 우리 대학의 일상사로 되어 버렸다. 자리 매김을 이미 자포자기한 나머지 이 건물 이방

총장 기념식

향한 민족교육과 학문연구, 그리고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속에서 명문사학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대는 한국근대사를 통해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사회에 봉사할 인재양성이라는 커다란 사명을 완수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사정을 살펴보면 그간 선배들이 쌓아놓은 훌륭한 전통과 역사가 서서히 그 빛을 바래가고 있는 것

만 아니라 교수, 학부모임들의 도움과 재학생들의 협조로 100%에 달하는 1학기 등록금 납입률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그동안 학교의 위기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학교의 안정을 이루는데 임각하여 자제와 인내로써 큰 도움을 주신 재단, 학부모, 교직원 학생, 동문여러분들의 동국에 대한 애정과 열의에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세계,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확립을 통하여 민족적이고 책임있는 학사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내에, 학교구성원 각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확보를 위해 재단, 전 동국가족, 종단, 전불교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재원을 확보해

각 구성원간 약속사항 성실 이행...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은 동대개교 이래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서 동국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계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본교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본인이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마음 실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국을 사랑하는 많은분들의 도움으로 총장 취임직후 출원, 입학식등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신학기를 맞이하여서는 수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학원내의 면학분위기도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반

뜨거운 애교심과 모교애의 발로라고 보고 다시한번 감사와 책임의 중대함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쁜날을 맞아 본인이 학교를 운영해 나갈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교발전을 위해 본인은 각 구성원간의 그간의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전 동국가족이 상호합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대학운영에 있어서는 원리원칙에 따라서 대학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머지않아 동국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동국이 걸어온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제가 다닐 때의 명문사학으로 기필코 발전시키어 새로운 21세기에 웅비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습니다. 우리 동국에 몸을 담았던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和靜精勤에 입각하여 권교일치열력, 본교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굳게 뭉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장서리 申國柱

90년도 특별학술 연구비 지급

인문·사회·자연분야 金正梅 - 朴康植 - 李海浜 교수

90학년도 특별학술연구비 지급 대상자로 인문과학분야에 金正梅(영어영문)교수, 사회과학분야에 朴康植(경제)교수, 자연과학분야에 李海浜(농생명)교수가 각각 선정돼 지난 7일 오전 11시 수여식을 가졌다.

매년 개교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이번 특별학술연구비는 지난 8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본교재직교수

들의 연구업적을 치하하고 학원내 연구풍토의 활성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분야에 21명씩을 선정, 2백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학술연구비'를 받게된 교수의 연구·수상자로서는 △김정메교수 '한국에서의 로렌스 수명' △朴康植교수 'Growth Development & Competitiveness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李海浜교수

수 'Effect of experience on the response of the parasitoid Brachymeria intermedia to it's host and to kairomone'

한국불교전서 보유판

92년까지 발행계획 출판부는 '한국불교전서' 전 10권을 지난달 11일에 완간한 데 이어 당시 미출간 내용을 선정하고, 보유판 2권을 오는 92년까지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전서'는 전문분화를 계조명하고 불교역사를 총망라한 것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던 하나 색인·해제 등 전면교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세로 보완하게 되는 자료는 조선조 이후 한글·고승들이 집필한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선전대' 공연

서울캠퍼스 총9개 단체인 연합형태의 '문화선전대' 공연이 풍물놀이, 노래공연을 내용으로 오는 14일 만해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발대·공대·농대를 제외한 각 단대의 문화부장을 중심으로 연합한 이번 문선대는 오는 18일 광주김길영재단에서도 문화공연을 할 예정이다 있다.

봉축 법요식 거행

불기 2천5백34년 부처님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지난 22일 오전 10시 申國柱총장서리, 학처장, 신도, 교직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각전에서 열렸다.

삼귀의, 반야심경독경, 헌화, 임경, 봉축법어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요식은 吳錫園 이사장의 불참으로 정각원장 李海浜(신학)스님이 헌화, 봉축법어를 대신했다.

교육학과 간담회

진로문제 등 논의

사립대 교육학과 학생회는 '교육학과에 위상에 대하여'란 주제로 교수·학생 간담회를 오는 11일 오후 5시 교육학과 학

曹佐鎬 박사 도서 기증

1천3백여종 2천4백여권

본교 총장서리와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南溪 曹佐鎬(동양학)박사는 1천3백83종, 2천4백21권의 책을 지난달 2일 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기증도서들은 단행본으로 사정 및 총서, 정치·사회·경제·문예 및 기타도시와 학술잡지 등이다.

이번에 도서를 기증한 南溪 曹佐鎬 박사는 지난 53년에서 66년까지 본교부교수 및 교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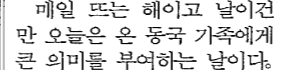
총장기 농구대회 폐막

홍대부고-덕성여고 우승차지

제16회 본교 총장기농구대회는 지난 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홍대부고

는 인천 송도고를 94대78로 16점차로 크게 이겼으며, 덕성여고는 대전중앙을 54대38로 각각 눌러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달 25일 개막 이래 남교부 15게임



여흥 '간부전진대회'

학우돕기 모금운동 등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간부전진대회' 기간으로 설정하고 메이데이 동맹휴업과 구속학우돕기 운동을 전개했다.

여흥은 지난달 28·29일은 메이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남부지구 철야농성을 가졌으며, 구속학우돕기 모금운동 전개 및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 현실이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무기력한 발간사의 신음일련의 물라도, 우리 대학의 교정은 실로 참담하기까지 하다. 불상앞에 전을 펴 놓은 보직 교수님들의 집기, 직원의 가슴에 부박된 리본, 도서관 유리창에서부터 각 건물에 흠뻑히 세겨진 옥구 분출의 주의 주장, 빈번히 일어나는 기두 시위에서의 교통 혼잡등은 우리 대학의 일상사로 되어 버렸다. 자리 매김을 이미 자포자기한 나머지 이 건물 이방

개교기념일의 斷想

고 현실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한 필작 물러서서 방관할 수 있을까. 어제의 영광수가 오늘은 이러한 보직자가 되어 모든 화살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새겨 붙어 있다. 또한 불거고에 시달리는 '부모'를 잘 이해하는 학생이라면, 스승이 잠깐 영구를 뒤로 미루고 어려운 게 정으로 학교 살림을 차렸어 살아 보려고 하는 깊은 뜻도 실면 이해 할 줄 알아

하듯 될 것 이다. 위기도 상대적 이므로 순경으로 바

꿔 놓을 수 있다. 손을 안뜨게 하는 악을 놓고 한 사람은 인생 숨을 빼는 일을 면치 못했다. 다른 한 사람은 장수가 되었다는 莊子의 이야기도 우리 동국가족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큰방 큰치해 큰힘으로 슬기를 모아 악몽을 떨치고 비상의 날개를 펴자.

崔 玄 覺

민자당 창당 분쇄투쟁

동맹휴업·가두시위 예정

5월9일의 민자당창당을 분쇄하기위해 제22대 총학에서는 선전전, 동맹휴업등 대대적인 투쟁을 벌인다.

총학은 지난 7일 '민자당 완전타도 및 5월부정선거포식'을 오후 2시 중앙당에서 갖고 메이데이 동맹휴업평화와 오늘(9일) 동맹휴업을 제안했다.

이날 부총학생회장 이진환(경영4)군은 '5월부정선거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자당창당일인 오늘(9일)은 오전에 각단위트론을 선전전을 열고 12시에 '민자당분쇄 및 노정권타도'를 위한 범동맹투쟁선 포식을 만해광장에서 갖고 오

후 3시이후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벌인다.

한편 민자당창당과 관련, 동맹휴업에 들어간 파는 다음과 같다.

△불교대-불교(1년), 선학(1, 2년), 인철(1, 2년) △경상대-회계(1, 2년), 무역(1, 2, 3년), 회계(1, 2, 3년), 경영(1, 2년), 정보관리(1, 2년) 경제(1, 2년) △사회대-사회(1, 3년), 행정(전학년), 정치(전학년) △사범대-국교(1, 2, 3년), 영교(1, 2년), 교육(1, 2년), 지교(2년) △예술대(미술, 연영과 전년) △이부대-경제(1, 2년), 경영(1년)

축 개교 84주년



로봇 칙칙 보일러

가정용 로봇 칙칙 가름 보일러에 이은 또하나의 역사 로봇 칙칙 가스 보일러 - 국내 최초의 음성전달 기능 장착과 8가지 안전장치 설계로 가스 보일러의 개념을 한차원 끌어올렸습니다.

16년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열공학 기술의 정수만을 모아 탄생시킨 로봇 칙칙 보일러는 가스 난방문화의 풍경을 더욱 높인 첨단 기능의 보일러로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약속드릴 것입니다.

편리하고 새로워요 로봇 칙칙 보일러 첨단 기능

- 실내온도 조절기능**
안방에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R/C(Room controller)에 의한 실내온도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 취침기능**
취침시 실내온도를 항상 20°로 유지시켜 주는 취침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항상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 기름 잔량 표시기능**
연료탱크의 기름잔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연료부족시 은은한 멜로디 소리가 연료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 사계절 선택기능**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선택기능이 본체에 장착되어 있어 항상 계절감각에 맞게 신선하고 쾌적한 난방이 가능합니다.
- 멜로디 기능**
보일러에 조그만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은은한 멜로디가 울려 보일러 상태를 알려줍니다.
- 외출기능**
동작기 장기간 외출시에 동파를 예방하는 외출기능이 R/C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동국인의 집 가맹업체

(주) 로봇보일러 대표이사 성 중 석(60년 경제학과 동문) TEL. 756-2121

로봇보일러 총판장 대표 방 승 운(65년 경영학과 동문) TEL. 478-6511, 477-1307, 486-2784 *로봇보일러 전제품 판매가의 15% 할인





I. 머리말

소련공산당은 오늘날과 미래의 사회경제체계의 해결은 근본적인 경제개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그 결과 독점주의와 무정부주의, 낭비성 불경성, 소비자들의 이익에 대한 비고려로 특징지어지는 지형배양적 체계 대신에 다양한 소유형태, 독립된 상품생산자들간의 경쟁과 발전된 경제체계, 개인적 및 집단적 관심사에 대한 강력한 자극에 기초한 계획시장적 경제가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련공산당 제28차 당대회 '장령초안')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을 보면 1951년에서 1983년 사이에, 소련의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매년 평균 증가율은 6.1%였다. (미국은 2.9%) 1960년에 소련의 산업생산성은 미국의 44% 수준이었는데 1970년에는 대략 53%에 이르렀고, 1980년에는 55%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상과 같은 경우, 원천 격차를 극복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것이다. 1971년부터 1983년까지 13년 동안에 격차가 단지 2%만이 좁혀졌을 뿐이다. (1981년에서 1983년 사이에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1917년 혁명 후 반혁명 간섭전쟁의 과정에서 1930년에 실현이 완전히 소멸하고 노동기능공구의 완전고용을 통해 노동자 및 여타 근로자의 생산활동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파시즘의 침략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소련 및 동구권의 경제 복구 과정도 1950년대 초반으로 끝났다.

II. 소련의 기존 축적체계의 내용

현재 소련경제는 외연적 축적체

제로부터 탈피하여 생산시설의 합리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기초한 내포적 축적체제로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위해서는 외연적 축적체계에 맞추어진 전반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런 점에서 내포적 발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 관리 메카니즘의 혁신이 요구된다.

현재 진행되는 경제관리 메카니즘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앞서 기존 축적체계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자.

중반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극복되기는 하였으나 관료주의와 행정적인 경제관리 방법은 계속되었다.

1979년에서 1982년에는 국민경제의 실질성장률이 범주였으며 경제는 정체현상을 보였다. 노동을 대하는 태도도 심각하게 나빠졌다. 인위적인 임금인상, 뇌물수수, 부당 이득, 권력남용이 성행하였다. 행정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이 과거 그대로 비능률적인 체로 남아 있는 한, 주의주의적인 방법으로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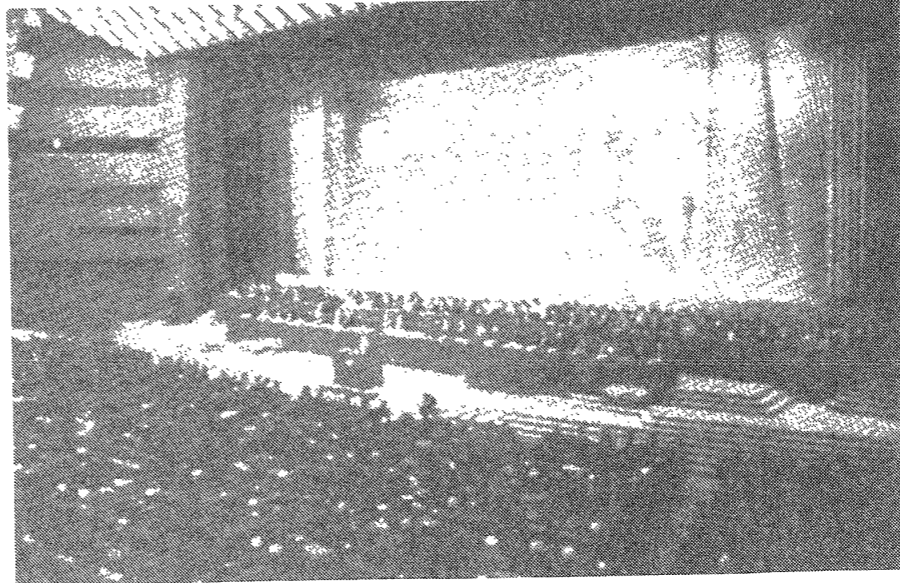
가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1985년 4월 총회에서야 비로소 현존하는 문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광범한 개혁이 세워졌으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

가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1985년 4월 총회에서야 비로소 현존하는 문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광범한 개혁이 세워졌으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

III. 축적구조의 재편내용

생산력 그 자체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어진다. 생산력은 인간이 자연현상과 자연력을 극복하는 힘의 정도와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자연을 변용하는 사회적 능력으로 규정된다. 사회발전에서 생산력의 결정적 역할에 대한 M-L주의적 정칙은, 노동생산성이 새로운 사회의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는 명제로 구체화되었다. 사회적 노동생



리 단 88년 19차 소련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경제개혁, 내포적 발전체제 위한 전제

개인·조합적 소유... 국유화위한 과정 시장경제도입= 자본주의화 등식무리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을 보면 1951년에서 1983년 사이에, 소련의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매년 평균 증가율은 6.1%였다. (미국은 2.9%) 1960년에 소련의 산업생산성은 미국의 44% 수준이었는데 1970년에는 대략 53%에 이르렀고, 1980년에는 55%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상과 같은 경우, 원천 격차를 극복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것이다. 1971년부터 1983년까지 13년 동안에 격차가 단지 2%만이 좁혀졌을 뿐이다. (1981년에서 1983년 사이에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1917년 혁명 후 반혁명 간섭전쟁의 과정에서 1930년에 실현이 완전히 소멸하고 노동기능공구의 완전고용을 통해 노동자 및 여타 근로자의 생산활동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파시즘의 침략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소련 및 동구권의 경제 복구 과정도 1950년대 초반으로 끝났다.

II. 소련의 기존 축적체계의 내용

현재 소련경제는 외연적 축적체

가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1985년 4월 총회에서야 비로소 현존하는 문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광범한 개혁이 세워졌으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1985년 4월 총회에서야 비로소 현존하는 문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광범한 개혁이 세워졌으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

1920년말부터 가속적인 공업화나 집산화 추진되면서 NEP시기 데닌의 '경제개혁' 사회주의개념은 사실상 철회되고 전소련공산주의 시기의 행정주의적 경제로 바뀌었다. 이후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사회주의와 시장을 대립시켰고, 마르크스가 추상적으로 예측한 '사회적 노동의 계획적 분배'라는 원리가 교조적으로 해석되어 중앙계획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사회주의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의 현대적 발전 수준에서는 상품생산과 경제적 관리방법이 사회주의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라는 생각이 오늘 점점 더 분명하게 사회적 의식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소련이 채택한 시장 메카니즘은 '미시경제적 시장메카니즘의 확립과 거시적 계획의 국가 담당 수준이다. 그러나 이 과학기술은 경제개혁에 내포하는 군사부분 및 우주항공분야에서만 실현되고 민간 부분에는 거의 확산되지 못했다. 과학기술의 생산기술화는 과학기술적 법칙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장과 경쟁을 배제한 소련

에 원자재의 절약적 사용을 강제할 것이고 국가의 특성이 출현하는 경우에만 간섭한다.

“소유관계를 철저히 개혁하지 않는 경제개혁이란 상상할 수 없다. 소련공산당은 다양한 형태의 소유를 주장한다. 그것들의 동등하고 건전한 경쟁은 공인의 자유, 근로자 개인이 자기의 기능을 경주할 형태와 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선택할 자유,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를 담보해주는 경제적 기초이다” (소련공산당 제28차 당대회 장령초

◇글심는 차례

1. 페레스트로이카 총론
2. 경제개혁의 쟁점과 논리
3. 정치개혁의 쟁점과 논리
4. 평화공존의 쟁점과 논리
5. 자주적 대외전략

악필 필요가 있다. 전인민적 소유를 소유의 사회화의 완성된 형태로 구축하기 위한 현재 동구 및 소련의 변화는 상품·시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화'로 규정될 수 없음을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모든 소유를 국유화하기 위해서 도달해야 할 생산력의 수준을 위한 경제개발전략으로 소유형태의 다원화를 피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협동적 소유 또는 개인적 소유가 타인의 노동에 근거할 수 없는 한, 공동체적 생산에 의한 이윤의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소유의 국유화를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로 예기되는 현재 사회주의의 개혁은 완성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단계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준영 (자유기고가)

용어해설

외연적 축적체제

외연적 축적체제란 분배비례법정부가 반(半)식민지 반봉건적 단계의 경제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화혁명후의 산업화정책을 뜻하는 것이다. 이 사회주의적 시초축적은 생산력의 규모와 성격상 자본주의발전 단계와 비교할 때 메뉴페터에서 기계 대공업으로의 산업혁명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생산력발전을 위한 객관적 방향이었다.

내포적 확대재생산

내포적 확대재생산의 핵심을 이루는 생산수단의 경제는 여러요인으로 구성된다. 동일한 양의 산출물의 투입이라는 전제하에서 ①기계가 효율화된다면 기계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②연료, 원료소모가 적게 기계제품을 향상시키면 또 다른 생산수단경제가 나온다. ③기계의 효율화 품질화는 고도의 숙련된 노동과 해방된 주체적 노동이 필요하다. ④생산수단의 주체적 취급은 동일량의 노동으로도 생산수단의 품질을 가져온다. ⑤생산수단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그것을 요구케 하는 경제메카니즘이 필요하다.

그런데 외연적 축적체제는 이러한 것을 어렵게 하는 생산양식적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미시경제차원의 시장메카니즘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생산영역으로 전파시키고 억압적인 관료체제를 고쳐 생산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포적 확대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도입=자본주의화라는 등식은 무리가 있다. 마르크스는 상품생산의 극복을 사회적 소유뿐만 아니라 가장 고도의 생산력 발전과도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때는 인간과 자연사이에서 증대되는 생산과정이 형성되고 그 결과 인간은 더이상 물질생산의 직접적 참여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 시기가 현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소련공산주의 시기에 사회주의를 직접 불분명하게 전 환시키려는 시도가 오류로 인정되었던 레닌의 평가를 상기해 보자. 문제는 시장메카니즘과 계획적 관리 사이의 관계와 결합양식 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에 있다. 제품의 상품화는 적극 추진하면서 생산수단 및 노동력의 상품화는 거부하는 현재의 입장이 모순없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까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경제적 구조재편의 쟁점

1) 시장메카니즘의 복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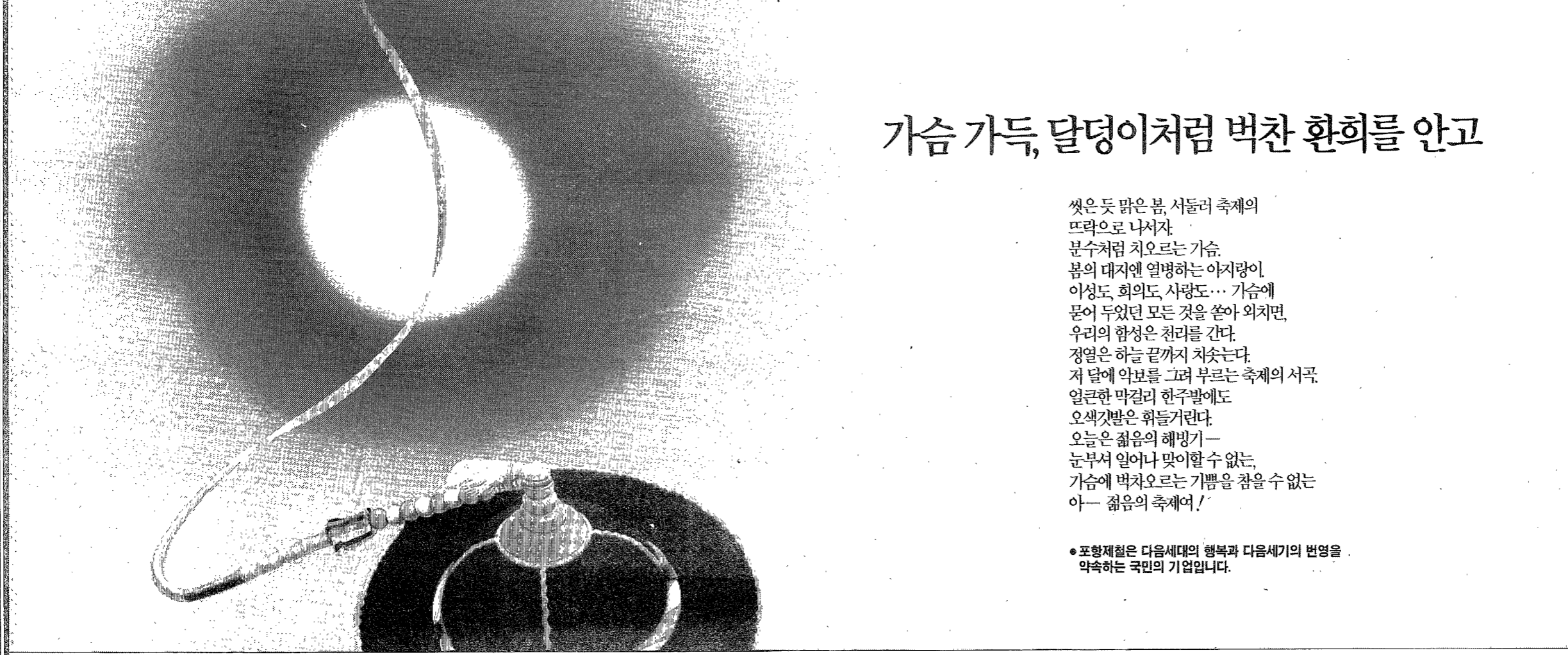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요소 및 상품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현대적 사회주의의 나라의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가 나누어 진다.

그러나 시장경제도입=자본주의화라는 등식은 무리가 있다. 마르크스는 상품생산의 극복을 사회적 소유뿐만 아니라 가장 고도의 생산력 발전과도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때는 인간과 자연사이에서 증대되는 생산과정이 형성되고 그 결과 인간은 더이상 물질생산의 직접적 참여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 시기가 현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소련공산주의 시기에 사회주의를 직접 불분명하게 전 환시키려는 시도가 오류로 인정되었던 레닌의 평가를 상기해 보자. 문제는 시장메카니즘과 계획적 관리 사이의 관계와 결합양식 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에 있다. 제품의 상품화는 적극 추진하면서 생산수단 및 노동력의 상품화는 거부하는 현재의 입장이 모순없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까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경제적 구조재편의 쟁점

2) 소유제와 관련하여

경제전락노선의 필요에 의해 협동적 소유가 강조되는 소련, 동구 그리고 현재의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는 북한은 경우는 다르게 파



가슴 가득, 달덩이처럼 벅찬 환희를 안고

셋은 뜻 맑은 봄, 서둘러 축제의
뜨락으로 나서자.
분수처럼 치오르는 가슴,
봄의 대지에 알맹이는 아지랑이
이성도 희도, 사랑도... 가슴에
묻어 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 외치면,
우리의 함성은 천리를 간다.
정열은 하늘 끝까지 치솟는다.
저 달에 악보를 그려 부르는 축제의 서곡,
얼큰한 막걸리 한수발에도
오색깃발은 휘둘러준다.
오늘은 젊음의 해방기—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 없는,
가슴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참을 수 없는
아— 젊음의 축제여!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정부 홍보용 마이크 될수 없어

“방송자주권을 쟁취하자” “관계 언론 마술사 시기원은 퇴진하라” KBS사원들이 방송자주화를 외치며 KBS본관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68일째 접어들고 있다.

지난 23일 밤 복을 치며 후배들의 투쟁을 둘러싸고 오순이 넓은 김계석씨가 사원들의 만류도 뿌리치며 농성하다가 쓰러져 뇌사상태에서 사망하자 이것을 계기로 KBS 자주화투쟁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세계언론사상 초유로 정부는 쿠데타가 아닌 상황에서 TV방송국을 경찰을 투입, 방송사 직원 1백77명을 연행하는 기록(?)을 세우더니, 30일에 또다시 KBS에 3천여명의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 사원 4백여명을 강제연행(?)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정부의 KBS 장악음모는 올해 초 대규모 PD수배 및 구속부터 기미가 엿보였다. PD들이 금품을 받고 연예인을 출연시켜 준 것을 확대·과장 기사화, KBS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유포시켰다.

이이 2월에는 KBS경영수당 미지급분을 불법(정확히 말하면 유추해

방송자주화 진통 겪는 KBS는 지금...

물체징을 하면 그것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 이사회는 자주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결정이 안된다는 것은 적법성이 희박한 것으로 정부의 논거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관선사장 서기원은 3공시절 국무총리 공보비서관을 거쳐 80년 광주민중항쟁때는 청와대 대변인직을 수행하면서 ‘전

지난 28일 KBS가 정상화한다고 발표가 된후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자 정부는 “이미 합의된 안건에 대해 이를 파기했다”며 즉시 경찰을 투입 4백여 사원을 연행했다. 그러나 이런 KBS노조원은 “그 합의는 김홍갑 전 총무처장관과 이루어진 것일뿐이다. 그 사람이 협상에 이복이 없으며 ‘나는 대통령 특사다’라고 하길래 처음엔 믿지 않았

의조건 무산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자 비상총회를 열어 다시 제작부에 들어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즉 KBS사원들의 제작거부는 전체요건의 파기로 당당한 결과였는데 정부는 전제요건은 뒤로 슬쩍 감추고 ‘합의사항 파기’라며 경찰을 재투입시키는 단순무식한 면을 보였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편을 붙여 결국 현재 정부가 자행하는 언론탄압은 노동운동탄압과 마찬가지로 장기집권을 노린 전혀 법적근거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KBS는 어느 개인의 더구나 정부의 소유물은 결코 아니다. KBS는 국민의 신성한 일권리를 지켜주는 눈과 귀다.

국민의 옳은 판단을 도와주는 언론의 자주권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법’을 들먹이며 공권력을 앞세워 언론자주화의 싹을 짓밟는 일은 누가 참는는 말처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3공이래로 꾸준히 ‘보도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군사정권에 맞서 ‘언론자주화’의 이름으로 거듭 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KBS, MBC, CBS등 방송국과 언론노련의 각 사들이 연대투쟁을 결의했고 한양대 신방과 팀의 서울시민연대조사에서 국민의 KBS에 대한 지지가 가시화 되었으며 축간 김계석총무가 언론자주화를 바라보고 있다.

이미 이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KBS에는 정자택, 장바지의 공권력에 골목까지 지키고 있지만 민주화로 가기위한 오늘의 투쟁은 올산의 현충투쟁과 더불어 이들을 청소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남궁은 記)



“정권의 충견을 사장으로 맞으라니” 국민지지도 높아 이미 이긴 싸움

석으로 인한 불법인)으로 처리했다 하여 서명문 당시 KBS사장을 자진 사퇴시킴으로써 KBS장악을 위한 정부의 시나리오는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KBS비상대책위원회는 ‘정권의 충견이 또다시 KBS의 사장이 되게 할 수 없다’는 서명을 발표하여 후임사장에 대한 임명을 천명했다. 그러나 4월 3일 KBS이사회에서 서기원을 사장에 임명하자 제정함에 따라 비르스 공보처를 선두로한 정부당국과 KBS사원들간의 마찰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오늘과 같은 2차례의 경찰 투입과 방송 제작거부의 지경에 이르러 되었다.

KBS사기원 사장 취임의 정당성에 관한 정부측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논리적근거는 KBS이사회 결의문을 통한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적법한 절차’였다는 부분이다. 이것 하나로 정부는 두차례의 공권력 투입과 최근 KBS지하의 노조사무실 폐쇄라는 결코 ‘적법’하지 않은 일을 자행했다.

그러나 정부측의 주장에는 허구성이 뒤따르고 있다. 4월 17일 한운사 KBS이사는 양심선언을 통해 사기원 사장제정은 인륜도덕없이 판로 및 방적 표백에 불과 했으며 12명 이사 개인들의 비리가 탐문·조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스포츠과장중 8대4로 제정이 결정되었으나 보충 표백제라는 다른 분위기로 이미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당했다’는 말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도덕없는 표백’부분으로 이사회토론으로 인

국비상계입학대조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기초하여 ‘폭도’로 매도하는 역할을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한편, 6공들에서도 서울신문사장으로 서울신문노조의 민주화투쟁을 가져다 놓은 대표적 ‘정권의 충견’이라고 노조측은 설명하고 있다. 5공부터 KBS의 사장은 대부분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권력의 핵심인사가 배치되어 KBS를 정부의 홍보용 마이크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6공 출범과 더불어 권력은 줄어 없는 중사단 출신 서기원이 사장이 되자 권력의 의도가 KBS에 효과적으로 미치지 않자 노태우정권은 92-93년의 권력체편기를 앞두고 언론장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PD구축, 감시원결과등을 터뜨리면서 관세사장 서기원을 앞둔 것이다. 이것은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언론을 틀어 쥐어야한다’는 파쇼적 발상이라 민자당 합당 이후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언론장악음모의 첫걸음이라 할수 있는데 이는 1월 23일 합당선언 이후 바로 다음 날부터 PD사건이 일간지 사퇴편을 장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서기원 사장 취임은 총선을 앞두고 언론장악이라는 전제구도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 철회는 노태우정권에서 볼때 가장 기본적인 계획부터 좌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할수 없게끔 되어 있다. 한편 KBS역시 언론장악의 시발점이 명백한 이를 허용할수없고 또한 KBS를 위시한 전 언론사도 이에 맞서 연대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으나 최병렬 공보처장관이 ‘정상화가 안될시에는 28일 오후 2시 정각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는 데 협상하면서 그가 ‘공권력 투입은 내가 연기시키겠다’면서 실제로 연기시키지 않고는 대통령특사라고 인정하고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서사장을 가까운 시일내 퇴진시키는 조건으로 방송정상화를 발표했었다. 그런데 방송정상화 발표후 김홍갑이 태도를 돌린 ‘개인자격’이었다고 발령을 하면서 합

의 조건 무산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자 비상총회를 열어 다시 제작부에 들어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즉 KBS사원들의 제작거부는 전체요건의 파기로 당당한 결과였는데 정부는 전제요건은 뒤로 슬쩍 감추고 ‘합의사항 파기’라며 경찰을 재투입시키는 단순무식한 면을 보였던 것이다.

지금도 남의 땅, 빼앗긴 반쪽에도 봄은 오는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밤낮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불쾌하게 만들면서까지 철물같은 경비를 받으며 정부중첩참사 앞에 당당히 버티고 선두한 미대사관.

세백에도 불이 환하게 쬐겨있는 그곳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미대사관 건물은 1960년 한미 상호방위협약이 존속하는 한 무상으로 사용기로 되어 지금까지 든 혼돈 안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미대사관의 각 기관을 살펴보면 8층은 정치외교부, 9층, 10층, 11층, 12층은 경제외교부, 13층은 문화외교부, 14층은 교육외교부, 15층은 관광외교부, 16층은 정보외교부, 17층은 인사외교부, 18층은 행정외교부, 19층은 기술외교부, 20층은 기타 부속기관이 구성되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요인물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이 보고되고 있을 것이다.

6층은 경제관련부서로 경제, 상무, 농무외교부 세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 관리들은 5·16, 10·26, 5·17, 12·12 사태등 한국의 역사를 수렁으로 밀어넣어 버린 몇몇 사건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도저히 모를래야 모를 수없는 조직을 가진 그들의 말들은 차라리 애처로운 정도로 설득력이 없다.

CIA가 벌이는 다른나라에서의 내정간섭 형태로는 ①정치적 조언 및 자문 ②통정개입에 대한 지원 ③통정 정당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적인 협조 ④노동조합·회사를 포함한 개별단체 지원 ⑤비밀선전 ⑥통정개입에 대한 특수훈련 및 인공교란 ⑦경제적 공작활동 ⑧통정정권의 타도와 지원을 위한 준군사적 전과 정치작전이 그것인데 이런 기본적 활동 외에 유인물, 폭력에 뿌려진 유인물까지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는 CIA의 설득과 자문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을 말한 것 뿐이다. 더불어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또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기사중 일부를 보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존속하거나 한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한 우리는 한국에 남을 것이다. 미군의 주지 필연인지는 그러한이 없었는데...”란 불을 붙여 보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달리나 그레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해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정보분야에서 근무했던 관리들인데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 따라서 주한미군의 대사로써 그의 자격과 업적은 그의 언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지 그의 경력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 쓰고 있다.

이는 대장관인 우리측에 대한 배려는 무시된 채 자신들의 시각

을 말한 것 뿐이다. 더불어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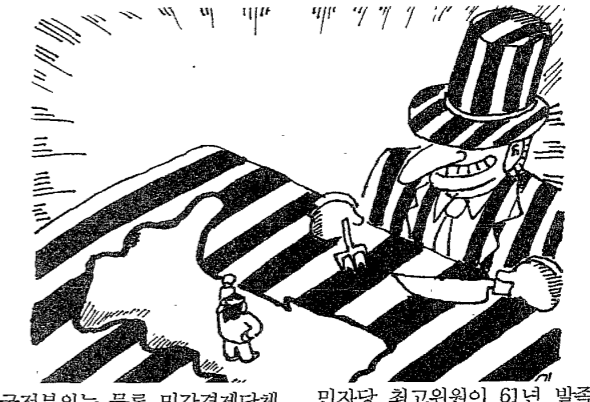
또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기사중 일부를 보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존속하거나 한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한 우리는 한국에 남을 것이다. 미군의 주지 필연인지는 그러한이 없었는데...”란 불을 붙여 보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달리나 그레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해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정보분야에서 근무했던 관리들인데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 따라서 주한미군의 대사로써 그의 자격과 업적은 그의 언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지 그의 경력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 쓰고 있다.

이는 대장관인 우리측에 대한 배려는 무시된 채 자신들의 시각

아메리카가 그립기의 정복자

정보외교부의 산실 미대사관을 파헤친다



한국정부와는 물론 민간경제단체들과도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한다.

대사관은 이밖에도 미국정부초청 시찰계획(IV계획)에 따라 한국의 정치·인문·언문 등이 미국을 시찰하도록 경비를 제공하기도 하며 한미 교육위원단을 지원하고 있다. 1960년에 생긴 이 위원단을 통해 그동안 696명의 한국인사와 427명의 미국 인사들이 ‘상호교류교육’을 받아 지금은 학계·법조계·언론계등에서 ‘극우층진’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제 살펴볼 곳은 가장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을 주무르는 CIA 한국지부다.

이 사무실은 대사관 5층에 위치하고 있다.

CIA가 상주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부터라 알려졌는데 야칭 CSR이라 불리며, 역대 CIA 한국지부장들은 20-30년의 공작경험을 가진 원숙한 첩보원들이라 한다.

또한 CIA는 고도의 정보망을 갖고 있는데, 한국지부장은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전국(NSA)의 한국 내무부를 지도하는 자리에 있고 작게는 참주한 요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고를 받는다. NSA는 세계 곳곳에서 약 2천개

민자관 최고위원이 61년 발족시킬 당시 CIA한국지부장이던 실버는 조직과 운영에 자문을 많이 했다. 이렇듯 우방국에 친미적이고 강력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잘관리하면 그정보기관은 나라에 공식적으로 바이너는 CIA 협력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라, 백두진, 장우수, 김홍필, 장민, 박종규, 김정철, 전두환...은 CIA와 친분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하지만 그때 CIA 한국지부장 실버는 회고록에서 장면서를 두고 “장박사가 전분적인 의미의 미국철자였던 적은 결코 없었다”고 쓰고 있다.

또 하나, 미국이 자신의 경제를 ‘부드럽게 포경한 문화원이 이들 조직과 무관한 수는 없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미문화원은 미국 해외공보처(USIA)의 지부이며 이것의 설립목적의 일부로써 보면 문화원이란 말은 허울좋은 간판을 알 수 있다.

스미국의 사회·문화·가치관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과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 및 목표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NSG는 세계 곳곳에서 약 2천개

첨단장비로 극비 분석가능 CIA 철수 이슈화 되어야

소의 통신모니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본부에선 매일 40통씩의 극비 자료를 생산한다고 한다. 암호해독 이외에도 대용량 컴퓨터로써 상대국의 통신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고, ‘트래킹 어널리시스’란 방법을 쓰면 군대배치의 변경상황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물론 한국에도 여러 군대의 NSA기기가 있는 것으로 보드했다. -월간조선 중-

미국 관리들은 5·16, 10·26, 5·17, 12·12 사태등 한국의 역사를 수렁으로 밀어넣어 버린 몇몇 사건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도저히 모를래야 모를 수없는 조직을 가진 그들의 말들은 차라리 애처로운 정도로 설득력이 없다.

CIA가 벌이는 다른나라에서의 내정간섭 형태로는 ①정치적 조언 및 자문 ②통정개입에 대한 지원 ③통정 정당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적인 협조 ④노동조합·회사를 포함한 개별단체 지원 ⑤비밀선전 ⑥통정개입에 대한 특수훈련 및 인공교란 ⑦경제적 공작활동 ⑧통정정권의 타도와 지원을 위한 준군사적 전과 정치작전이 그것인데 이런 기본적 활동 외에 유인물, 폭력에 뿌려진 유인물까지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는 CIA의 설득과 자문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미국의 정책에 대한 외국인의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 국무장관, 국가안보회의 위원들, 그리고 기타 주요리 국관리들에게 간다한다. 스미국의 목표 및 정책을 왜곡 또는 좌절 시키려는 절대적 시도에 방향한다.

이렇듯 문화원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고 자신들을 ‘문화적’으로 위장하는 일을 하며 도저한 운영, 강연회를 통해 ‘아메리카드림’을 조장하고 각종 정보수집·보고의 역할을 주도한다.

이와 반비례해서 주미 한국대사관이 갖는 역할은 그들의 주장하는 중반적 관계가 아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외교적 방문’일 뿐이다.

그 예로 한·미 외교의 열결점은 주미한국대사관을 건너뛰고 백악관-주한미대사관-주한미군사령부-CIA 한국지부-한국정부로 쉼어있다는 설은 지나 현실적이다.

월리에서 이어 그레그 현재 미대사도 CIA에서 전배가 짧은 사람이라는 것은 미국 대사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서울안의 조그만 미국, 이제 우리도 그 품속에서 몇몇 비밀공작을 펼치는 CIA에게 타격을 가해야 한다.

그동안 외젠던 ‘양키고프’ ‘주한미군 철수’ ‘CIA측각 철수’를 떠벌 매다.

(김영란 記)

시사평론 분석

특히 ‘편질자에게’라는 문명형식의 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89년 PJM-이리)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은 “지난번 미대사도 CIA출신이고 차기 미대사도 CIA출신이라 들었다.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러한이 없었는데...”란 불을 붙여 보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달리나 그레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해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정보분야에서 근무했던 관리들인데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 따라서 주한미군의 대사로써 그의 자격과 업적은 그의 언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지 그의 경력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 쓰고 있다.

이는 대장관인 우리측에 대한 배려는 무시된 채 자신들의 시각

을 말한 것 뿐이다. 더불어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또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기사중 일부를 보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존속하거나 한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한 우리는 한국에 남을 것이다. 미군의 주지 필연인지는 그러한이 없었는데...”란 불을 붙여 보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달리나 그레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해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정보분야에서 근무했던 관리들인데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 따라서 주한미군의 대사로써 그의 자격과 업적은 그의 언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지 그의 경력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 쓰고 있다.

이는 대장관인 우리측에 대한 배려는 무시된 채 자신들의 시각

을 말한 것 뿐이다. 더불어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또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기사중 일부를 보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존속하거나 한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한 우리는 한국에 남을 것이다. 미군의 주지 필연인지는 그러한이 없었는데...”란 불을 붙여 보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달리나 그레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해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정보분야에서 근무했던 관리들인데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 따라서 주한미군의 대사로써 그의 자격과 업적은 그의 언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지 그의 경력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 쓰고 있다.

이는 대장관인 우리측에 대한 배려는 무시된 채 자신들의 시각

을 말한 것 뿐이다. 더불어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또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기사중 일부를 보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존속하거나 한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한 우리는 한국에 남을 것이다. 미군의 주지 필연인지는 그러한이 없었는데...”란 불을 붙여 보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달리나 그레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해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정보분야에서 근무했던 관리들인데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 따라서 주한미군의 대사로써 그의 자격과 업적은 그의 언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지 그의 경력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 쓰고 있다.

이는 대장관인 우리측에 대한 배려는 무시된 채 자신들의 시각

을 말한 것 뿐이다. 더불어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또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기사중 일부를 보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존속하거나 한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한 우리는 한국에 남을 것이다. 미군의 주지 필연인지는 그러한이 없었는데...”란 불을 붙여 보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달리나 그레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해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정보분야에서 근무했던 관리들인데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 따라서 주한미군의 대사로써 그의 자격과 업적은 그의 언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지 그의 경력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 쓰고 있다.

이는 대장관인 우리측에 대한 배려는 무시된 채 자신들의 시각

을 말한 것 뿐이다. 더불어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또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기사중 일부를 보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존속하거나 한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한 우리는 한국에 남을 것이다. 미군의 주지 필연인지는 그러한이 없었는데...”란 불을 붙여 보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달리나 그레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해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정보분야에서 근무했던 관리들인데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 따라서 주한미군의 대사로써 그의 자격과 업적은 그의 언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지 그의 경력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 쓰고 있다.

이는 대장관인 우리측에 대한 배려는 무시된 채 자신들의 시각

을 말한 것 뿐이다. 더불어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5월 1일 불교방송 개국

101.9

FM 101.9MHz

FM 101.9MHz

방송개시 오전 10시

개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새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로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5월 1일, 세계 유일의 불교방송 개국! 보도, 음악, 교양, 포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의 피로를 씻어주고, 삶의 지혜를 진솔하게 전해주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가꿔나가는 뿌리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5월 1일, FM101.9MHz-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벅찬 환희와 만나시길 바랍니다.

BBS

기획점검 : 3년째 접어드는 '학자투' 어떻게 되고 있는가

8개항 무너진채 방향 잃고 '난항'

—서울 캠퍼스

○... 지난 88년부터 시작된 학원자주화투쟁이 올해로 ...
 ○... 3년째 접어든다. 학자투는 해방이후 계속되어온 ...
 ○... 미국과 그 대리통치세력의 학원에 대한 지배를 끊 ...
 ○... 어, 학원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 학사운영의 민주 ...
 ○... 화를 기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가 ...
 ○... 가면 갈수록 그 열기는 식어가고 있다. 살아있을 ...
 ○... 탐미자 밑에서 부터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이글에 ...
 ○... 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방향을 잃고 난항을 거 ...
 ○... 들하고 있는 학자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 ...
 ○... 고 현 학자투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대안은 무엇 ...
 ○... 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편집자) ...

I. 글을 시작하며

본교 학원자주화투쟁(이하 학자투)이 시작된지 올해로 3년째 접어 들고 있다.

지난 88년 6월24일 학교당국·교수·학생대표의 최초의 합의내용 전 문에서도 밝혔듯이 학자투는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지배권력의 학원에 대한 지배와 학원내의 비민주·부패·이용·무능성을 척결하고 학원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혁신시켜 내기 위한 자주화 투쟁이었다. (6월24일 합의문 전문=82년 역사의 동국대학은 깊은 잠속에서 빠져 있다. 이에 우리 교수와 학생들은 현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결과 그것은 학교의 두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올바른 주인의 위치에 있지 못함때 있었음을 함께 인식했다. 이에 1988년 5월9일 이러한 문제로 최초의 대항을 시작한 이래 학생들의 굳건한 동구중흥의 의지와 노력된 투쟁으로 많은 문제가 타결되고 최종적으로 몇가지 구조적 틀을 포함한 8개항의 해결방안을 학교당국에 제시하여 합의, 서명하였다) 그러나 학자투 2년을 보내고 난 90년 현재의 모습은 '학자투의 모범 동국대학교'라는 말과는 달리 투쟁성과가 있어 88년 당시보다 나어진 바 없는 그야말로 학생들로부터 떨어진 전철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학자투 8개항 합의내용의 가장 핵심부분인 각 위원회(교과과정위원회, 학적개정위원회, 3차연석회의, 동구발전위원회)는 88년도 합의 이후 현재까지 학교당국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각위원회 대표가 없는 상태이다.

개교 84주년의 민족대학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본교가 더이상 현재의 틀에서 주춤거릴 수 없다는 역사적 인식하에 그 체제내의 직접적 돌파구로서 제기된 동양의 학자투는 실명 살을 드러내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간의 철저한 반성과 검증을 통해 발전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II. 학자투 2년 점검

88년부터 90년 2월까지의 상황을 압축 전개함으로써 학자투의 흐름을 파악해 본다.

제20대 총학생회는 지난88년 출범 직후 '동구발전위원회 건설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교수인맥 및 제안행정에 관한 구체적 조사 작업에 착수, 학자투의 예고를 하게 된다.

학자투의 성화는 그해 5월11일 '강학급 내역 공개와 이용·무능교수 퇴진, 학과운영의 공개, 학원사찰 관련자 색출및 공개, 사당계약을 둘러싼 부정 해명'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학교당국의 불성실한 자세는 학생대표와의 협상과정에서 계속적인 난항만을 고수, 학생회는 결국 6월8일 개최된 학생총회를 통해 총투쟁을 결의하고 본관 점거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실을 비롯한 본관내 주요부서사 점거당한 채 학사행정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게 하고당국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 때에서야 학생대표와 본격적인 협상에 응하게 된다.

결국 본관 점거투쟁 17일 만인 6월24일 국적인 학자투 8개항 합의문이 李錫堉 前총장을 비롯한 교수 대표와 학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장실에서 작성되는 순간을 맞이 한다.

당시 합의된 8개항의 주요내용은 △교과과정위원회, 학적개정위원회, 3차연석회의, 동구발전위원회 등의 위원회구조 확립 △예산공개, 장학금 지급내역 공개 △동구발전위원회에 국적인 김인준·김현우교수 퇴진 △학원사찰의 책임을 지고 나던교 부처장 퇴진및 학생과 직원 권리의 보적발령의 내부부정비리

관, 이창배, 주중환, 신국주, 한상범, 장인준교수의 총장임무후보로 시작된다. 그러나 부정임명 당시자였던 李錫堉후보가 총장에 임후보 후보로서 선거 무효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학생회는 선거 무효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결국 12월8일 장인준, 한상범, 주중환, 이창배 교수가 선거 원인무효를 이유로 후보를 사퇴했다. 이후 12월 10일 신국주, 이지관후보만 남은채 총장선출을 위한 전체 교수총회가 도서관 3층에서 열렸으나 학생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열흘이 조금 지난 12월22일 파소경철의 학내 난입으로 총학생회장 김성규(당시 사학)군이 전대 총학생회장과 마찬가지로 구속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게 된다.

89학년도 학자투의 기조가 미처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이 90년 2월16일, 제안에서는 일방적으로 신국주 총장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나. 지위와 업무영역
 교과과정위원회는 총장직속의 독립결기구이며 존재는 자체의결에 의해서만 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의 개폐를 심의 의결한다.
- 2) 교수초빙과정과 이력 및 학문적 업적을 공개받아야 하며 교과목에 맞는 교수를 추천하는데 있어 교수 및 학생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3) 전공협의 담당·강의는 축소하고 전공선택·과목의 폭을 대폭 확대한다.

2. 학적개정 소위원회
 학적개정소위는 민주적인 재권리와 학원의 자율성, 학원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학칙에 보장받기 위한 기구이다. 학적개정소위는 학생대담 2인, 교수대표 2인, 학교당국 2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직속의 독립결기구로서 존재는 자체의결·타결은 구체적으로 별도 논의한다.

3. 3차 연석회의
 3차연석회의는 학원의 신성한 주체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교당국이 평등한 주인으로 독립되는 구조적 틀이다.

가. 업무영역
 △예산 결산을 공개받는다.
 △문제 발생시 교직원, 학생의 징계위원회 요구와 조사위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직원의 징계위원회 요구시 직원대표로 대표와 협의한다.

△예산 결산내역, 학교발전 아스트플랜을 제시받을 수 있다.
 △동구발전위원회에 대한 논의할 수 있다.
 △학교 행정에 관한 관계자료를 제시받을 수 있다.
 △관계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특례조항
 단,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결정권 갖는다.

나. 구성
 △학교당국3인(총장포함), 평교수대표3인, 학생대표3인의 9인으로 구성한다.
 △교수대표는 교수회에서 선출된 3인으로 한다. 단 모든 학사운영의 최고 결정권을 가지는 교수회의는 모든 평교수가 가입하는 평교수회의(유니온 슈)이며, 보직교수는 (학·처·실장)집행의 기능을 담당한다.

1. 회의소집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2)정기회의는 연4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3인 이상의 발의나 총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3)회의는 구성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라. 의결·타결은 구체적으로 별도 논의한다.
 마. 특례조항
 △불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성실히 노력한다.
 △총장은 연석회의 의결에 있어 만장일치로 결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회의 재심정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회 이상 결석 또는 객관적 부정의 증거가 발견된 구성원은 자동 자격정지된다.
 4. 동구발전위원회
 이는 장기적인 동국의 발전과 완전한 학원의 자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의 자문기구이다.

가. 구성
 동양의 각 개별주체 모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수·학생·학교당국·동문·조교·일반대학원생·특수대학원생·학부모·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나. 역할
 동국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학원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한다.

IV. 총체적 학자투 점검
 학자투8개항 합의내용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위의 각 위원회구조에 관한 현재까지의 진척정도는 실제적 성과부분뿐만 아니라 합의 이



88년 6월24일 학교당국과 교수회 학생간의 8개항 합의 서명장면

후 각 주체별 모임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학자투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교과과정위원회의 경우만큼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이것 또한 학생회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이었고 실질적인 학교당국의 노력은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교과과정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88년 6월24일 합의이후 조대중앙교과위원장 노승호(당시 조대문)교과 사회대 교과위원장 이용순(당시 경의3)교과 대표교과위원 오세민(당시 불교3)교과 3명이 교과위 위상제에 관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당시 유일하게 위원회 구조에 있어 교과위 학교대표로 김현규(교육학), 김주한(지리교육)교수가 선정된 전반기 사업을 학생회 대표와 의논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으로는 89년부터 국제파독인 교원과 체육이 영역필수에서 영역선택으로, 한국사와 개인과목이 교양필수에서 교양선택으로 각각 개정되었으며 사관의 이해, 변증법적유물론등 현실적내용의 교양강좌 9개 과목이 증설되었다.

그러나 교수초빙문제 및 교과위 대표 임명이라는 위의 각 위원회구조에 관한 현재까지의 진척정도는 실제적 성과부분뿐만 아니라 합의 이

각 위원회, 학교 대표 아예 없어 민중 선거로 인적·물적구조 혁신해야 교수초빙 특강, 학교입장만 관철

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20대 총학생은 8월24일 '학원자주화투쟁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철야 단식 농성 등을 전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과 교수회의 분열행동 및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일반 학생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2학기 학자투는 상당기간 소강상태에 머무른다. 그러나 10월10일 단 위교과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장직속의 독립결기구로서 존재는 자체의결·타결은 구체적으로 별도 논의한다.

3. 3차 연석회의
 3차연석회의는 학원의 신성한 주체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교당국이 평등한 주인으로 독립되는 구조적 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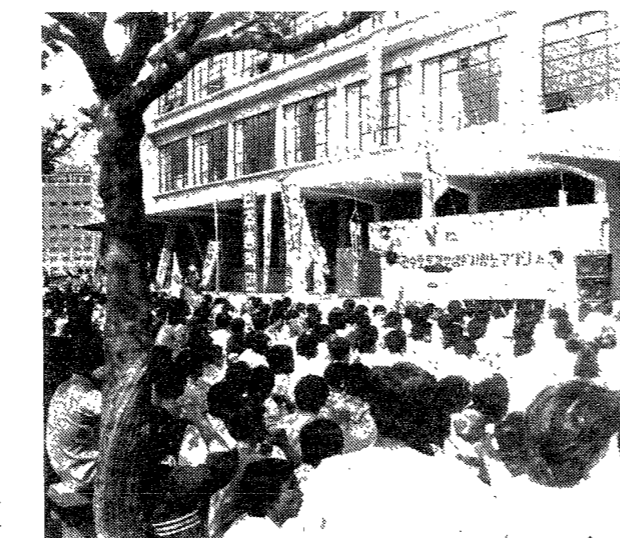
가. 업무영역
 △예산 결산을 공개받는다.
 △문제 발생시 교직원, 학생의 징계위원회 요구와 조사위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직원의 징계위원회 요구시 직원대표로 대표와 협의한다.

△예산 결산내역, 학교발전 아스트플랜을 제시받을 수 있다.
 △동구발전위원회에 대한 논의할 수 있다.
 △학교 행정에 관한 관계자료를 제시받을 수 있다.
 △관계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특례조항
 단,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결정권 갖는다.

나. 구성
 △학교당국3인(총장포함), 평교수대표3인, 학생대표3인의 9인으로 구성한다.
 △교수대표는 교수회에서 선출된 3인으로 한다. 단 모든 학사운영의 최고 결정권을 가지는 교수회의는 모든 평교수가 가입하는 평교수회의(유니온 슈)이며, 보직교수는 (학·처·실장)집행의 기능을 담당한다.

1. 회의소집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2)정기회의는 연4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3인 이상의 발의나 총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3)회의는 구성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88년도 당시 합의했던 8개항의 내용들을 다시 검증·확인하고 학교당국·교수회·학생회의 각 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날 동구관(L301)에서는 전체 교수총회가 열려 총장후보로 민방진, 이창배교수를 선출했으며 또한 직원의 징계위원회 요구를 반대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89년도 학자투의 총체적 과정이 민중선거투쟁으로 설정되거나 이것이 깨져버린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간의 학자투 전체상황의 맥이 끊겨진 것과 다를바 없는 상황이다.

90년도 학자투는 그렇기에 학자투 기조의 정립작업을 통한 옹호적인 제정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III. 각 위원회별 내용 점검

아래의 내용들은 지난 88년도에 합의했던 8개항의 내용중 가장 핵심이 되는 각 위원회 구조에 대한 원칙들이다. 학자투의 명폐한 기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당시의 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교과과정 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낙후된 커리큘럼으로 인해 퇴보·담보 상태에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학교의 두 주체인 교수의 학문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제도적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

가. 구성
 1)학과별, 단과별 재편위원회는 각단위에서 제기되는 교과목의 제정·개편을 심의·결정하며 단위별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단, 각 단위별 학과장, 학생포함 3인)
 2)중앙재편위는 학생과 교수 2/3으로 구성하며, 각 단위의 제정·개편안을 심의·결정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다. 중앙재편위는 교과과정의 연구를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강의실 확충등에 "매몰"

—경주 캠퍼스

경주캠퍼스 학원자주화투쟁(이하 학자투)은 시작된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복지시설 확충과 독자적인 행정처리 등 자치권행위에 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교수들의 연구환경과 학생들의 면학환경은 기본적 요구사항이던 경주캠퍼스는 설립12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강의실과 실습실, 교무부속이 허덕이고 있다.

제단과 학교당국에 철저히 의연되다시피해 장기적 발전계획수립과 제2차년도 행정편의 이원화책에 대해서도 대안 마련이 없기 때문

88년은 학자투원년이었다. 만큼 학생들의 참여는 적극적이었고 투쟁은 조직적이었다. 집행부와 일반 학우들과도 긴밀한 유대관계하에 일이 추진되어 투쟁40여일만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이루어지며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복지사항행위투쟁에서 빠져버려 느꼈던 경주캠퍼스의 행정실무자인 부총장, 3차장등이 실제적 권한이 전 혀없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행정적 비로한 제안업무가 서울캠퍼스사무로 이뤄지다보니 경주는 자연소외되고 발전도한 수동적이기에 마련되었을

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8년 5월에 일기 시작한 경주캠퍼스의 학원민주화투쟁은 법학·관공정법학, 경영학·경영학·고수학과, 교수총회 및 무능교수퇴진, 학과실습실설치등을 요구하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된 학자투는 10여일 만에 10여개과가, 한달여만에 28개 전과로 확산, 각과별로 '교과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더욱 열기를 고조시켰다.

총학생회도 이에 따라 학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학원민주화투쟁위원회(이하학민투)'를 발족, 본격적 투쟁으로 돌입했다.

당시 각과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법학과와 장학금 내역공개, 고시학사권면 △철학과의 서울캠퍼스와의 차별교과과정체계 △관공정법·경영학과의학과실습실 설치 교수총회 및 무능교수퇴진등이다.

또한, △국사·행정학과는 전공장 최우선발전요청 △불교이동학과의 병설요청 및 실습실공급확보 등 대부분 교육환경에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이렇게 진행되던 학자투는 절박을 없애리만큼 확대되어 전면 수업·시행기부와 부총장실등 전방위적 투쟁으로 확산되면서 요구 사항이 학내제문제에서 스민맥과별 교수 총회, 장학금내역전면공개 △학사행정의 학생참여보장 △비민주적 학과과정 △교과과정 전면 개편을 위한 교과위구성등으로 심화되었다.

각인하게 된 것이다. 이에 2학기의 주요과제는 경주의 자치권확보투쟁이 필수밖에 없었다. 前 총장의 사업인성계가 완성되지 못해 표류하다 하차중공공문헌의 사인규명투쟁과 부총장학생회장의 징계철폐투쟁을 계기로 본격적 학자투는 시작됐다.

경주캠퍼스 학자투의 최대과제인 자치권행위투쟁이 처음 제안됐다는 등 동구발전위원회는 투쟁발전기가 되었다. 초창기 부총장 직선이라는 큰 과제를 두고 학우대중의 인식부족과 지도부의 집행력, 지도력의 부족으로 난항을 거듭했으나 동구발전위원회라는 현안문제에 제시되자 학우들의 참여와 호응은 높아졌고 계속적 점거투쟁, 시위·수업 거부투쟁으로 이어졌다.

점거투쟁중 서류검사에서 불러트스트등 인기부담과 연결된 직원이 있음을 알게된 학생들은 직원을 모두 교문밖으로 추방하기도하는 우여곡절 끝에 방학이라는 시가지적 조급함으로인해 △등록금합산시 학생대표의 참석 △부총장은 교수와 학생이 노력, 자주적·민주적 인사를 선출한다등의 학생측 요구조건에 학교측대표의 조인으로 2학기의 학자투는 매듭지어졌다.

2학기의 학자투는 등록금등결이 한 현실적문제로 대공성을 확보, 우수교수확보, 무능교수퇴진, 복지시설 확충등 인적·물적·트래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아울러 경주자치권투쟁으로 결집했다.

이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것은 부총장의 실질적 권한이 확보되고,

서울의 총학생회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서울과의 지속적 상호교류로 인해 투쟁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성을 확보, 투쟁의 위력은 그만큼 컸었다.

지난해 학자투는 무원칙하고 대안없는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학자투의 관건은 '민주총장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집행부'에 의해 체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아울러 지난해 합의했던 부총장 직선이 교수회, 학교측에 의해 파기

됐음에도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서 목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등록금의 인상시 합의한 바있는 노천극장점점인의 배차와, 신철학과의 학과실습실 부족등으로 강의역시 어려웠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표류를 낳았으며, 제단 전일금학투쟁, 민주총장선거, 부총장의 권한확보를 위해 '1계단2층'투쟁이 처음 제안됐으나 현실적 문제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문제적 대안 부재등으로 인해 모두 오히려 넘겨지고 말았다.

다행히 자치권확보관련, 경주의 대부속병원, 여학생기숙사, 병당 등 시설확충부분은 조만간 성과로 남지만 근본적문제인 제안혁신은 건드려지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난 해 총학생선거가 11월로 전향되면서 모든 학생회의 역량이 선거에 매몰된 데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었다.

아울러, 4·13포항민정당사태라든가 관련 집행부가 구속되거나 수배상태에 놓임으로 더 이상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투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야한다. 일방적으로 서울캠퍼스에 따라가는 무원칙한 투쟁을 불식시키고 보다 발전적인 경주캠퍼스 실정에 맞는 투쟁방향을 설정, 경주캠퍼스 학자투의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독자적인 행정처리 보장해야 캠퍼스 실정에 맞는 사업절실

이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것은 부총장의 실질적 권한이 확보되고,

(김영진 기자)

우리는 일판의 불꽃이다

1
모진 사랑의 수목
모질게 싸우는 법이다
세상에 늘 먼 사랑이람 없다
늘 먼 사랑이 있다면, 만약 있다면
코웃음 하며 사랑이 아니다

2
민폐관청이 눈에 내린다
눈들은 광장위에, 손들 위엔 크리고 동우들의 등 위에
저희들의 두께를 살며시 내려놓는다
광장을 뜨겁다
동우들의 들들로 뜨겁게 앉아 있다
눈들은 그 뜨거움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그 뜨거움에 목이 매어 곧 광장의 울과 들들을
우리들에게 내어 보인다
그러나 보라, 눈과 광장이 만나는 곳에
우리의 사랑이 꽃고 있다

모진 사랑, 지극한 사랑이
꽃고 있다 저 울과 들
우리 사랑 아닌 것이 어디 있으랴
내 사랑 아닌 것이 어디 있으랴
싸움으로 확립된 사랑 내 사랑
항거를에 함께 빛나는
이여, 사랑사랑
눈송이가 불덩이를 쏟아지는

3
여기, 우리는 싸움의 끝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에 서있다
엇지말자, 우리가 시작한 싸움은
단순히 동우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과
학문의 자유를 위해
민중해방
민중해방 그리고 마침내
조국통일의 크기를 위해 싸웠던
무수히 많은 이 땅 민중들의 크나큰 사랑
그 싸움의 일부로써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싸움임을 드러내
우리 앞에 흉악, 어둠을 지켜내, 할 무엇이 아니라
모든것만 있을 그 무엇이 아니라
기묘하고 귀할 두개의 내우이여, 한다
크리고 우리는
스스로 무기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최후의 탄압에도 뜨겁게 맞서는
불꽃이 되어야 한다
일판의 불꽃이여, 한다

학자투 주요일지

- △88.5.11. 학자투 첫 집회, 3백여 학우들이 모인 가운데 장학금내역 공개와 이용무능교수 축출, 학교행정 공개, 식량계약을 둘러싼 부정 해명, 학원사할 금지등 요구.
- △88.5.26. 본관 학생과 기숙, 총장실 점거 실행, 학생과 점거시 학원사할자료에 대해 학우들에게 보고
- △88.6.8. 중강당에서 학생총회 가진 후 역사적인 총파업 결의.
- △88.6.11. 학치장 회의실에서 총장·학처장과 1차협상, 8개항 공식적으로 제기.
- △88.6.16. 중앙일보 왜곡사건 규탄대회, 4백여 학우 출정.
- △88.6.14. 교수회의 결과 성명서 채택, 3차연석회의를 자문기구 화하고 산하에 학칙개정소위·교과과정 위원회를 두어 유명무실화 시키는 내용,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8개항 거부되자 학생처장실 집기와 명진관 의사소각, 총학생회장 단식 돌입.
- △88.6.24. 역사적인 8개항 합의.
- △88.8.20 경주에서 열린 교수회의에서 8개항을 파기한 교수회칙 통과.
- △88.8.31. 전체학생총회에서 2천여학우가 8개항 사수와 류교명 쫓겨내 찬성.
- △88.9.15. 비상학생총회 개최, 교수회칙 전면거부, 교수회의 재결성, 5인소위 처벌, 오국근 교수회의장 퇴진, 재단예산처분 특별위원회 즉각구성 결의 후 본관 교수 세미나실 농성 돌입.
- △88.12.9. 12차에 걸친 협상 끝에 교수회의장의 사퇴표명, 총장의 사과표명으로 협상과정 타결.
- △89.3.6. 등록금 동결과 재단활동화 추진 위원회 구성 촉구
- △89.8.22~31. 문교부 감사
- △87.8.31. 부정입학 관련 총장구속
- △89.9.5~18.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수습생 모색, 경주캠퍼스 공동위 구성.
- △89.10.18. 공대위, 재단혁신방안 제안, 원이사진 퇴진, 총장스님 이사장 추대.
- △89.11.19. 총장선출 제도 통과.
- △89.12.10. 총장선출을 위한 투표무산, 이자관, 신국주의 모두 출마표기.
- △90.2.16. 신국주 총장서리 선입.

사진으로 본 학자투 3년

너! 동약이여 학원자주화로 휘몰아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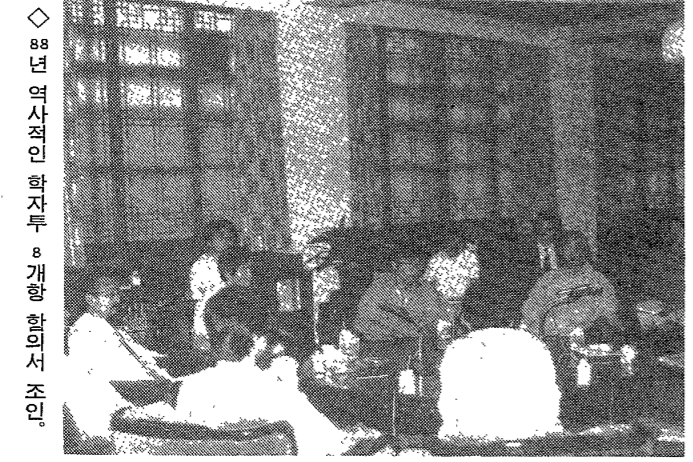


△88. 5. 장학금내역공개와 예·결산 공개를 요구하며 법대 학생들을 점거가능성하는 법대 학생들.

○... 학원자주화투쟁 3년. 때로는 벅찬 감동으로, 때...
 ○...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분노로 이어졌던 3년...
 ○...을 모아본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
 ○...와 미래를 위해서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투쟁으로서 학원자주화 투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의 지향점을 던져 주는 것이다. 척박한 식민...
 ○...지조국의 노예로 태어나 더이상 학문과 사상의 자...
 ○...유를 억압하는 세력들에게 학원을 넘겨줄 수 없다...
 ○...는 것을 현재의 사진들은 보여준다. 부족함이 많...
 ○...은 사진이냐 사그라드는 학원자주화열망을 다시...
 ○...금 생각해 한다면 다행이리라. 88년의 학원자주화...
 ○...투쟁때 외쳤던 구호를 외쳐보자.
 ○... "죽을수는 있어도 물러설수는 없다. 학원민주화...
 ○...투쟁만세!"
 ○... (편집자) ○...



△88년 학자투 2차 6개항 합의후 학생들에게 공개 해명하는 이자관 전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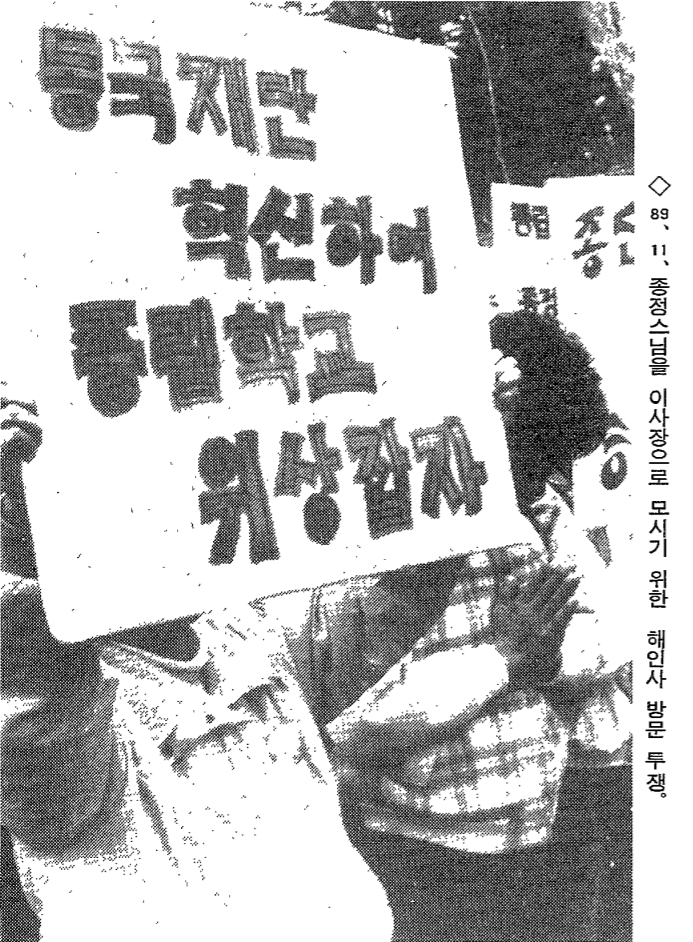
△88년 역사적인 학자투 8개항 합의서 조인



△88. 6. 총장과의 간담에서 8개항이 거부되자 명진관의자등 집기를 소각하고 있다.



△민주적 총장 선출안 마련을 촉구하며 교수 총회에 앞서 피켓팅을 벌이는 학생들.



△89. 11. 학생스튜디오 이사장이므로 모시기 위한 해인사 방문 투쟁



△88. 6. 중앙일보왜곡사건 규탄대회.



△90. 3. 3. 인화시장에 들어가라다 지지하라기 이자관 투쟁장

단결의 손 부여잡고 준비하는 '오월투쟁'

민주화의 성지 '해방광주'

열사잠든 망월묘역... 벌써부터 봄벼 파헤쳐진 도청서 투쟁할 준비 부산

‘지천에서 피꽃 흐드러질때 해방으로 일컬었던 날’이라고 쓰인 광주 망월동 5·18묘역 1백33번 묘의 주인 박병규.

미리 찾아가 본 ‘빛고을 해방광주’는 선배열사의 자랑스런 주검으로 기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1990년 5월, 광주민주항쟁 10주년과 친미파쇼

사들의 넋을 간직한채 그대로였다.

선배열사를 찾아

‘이 한몸 바쳐 아들의 불 밝히리라’, 5월 5일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꽃’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의외로 많은 참배객들이 묘역을 둘러보고 있었다.

우리에게 익은 조성만, 박관현,

라’는 만류도 뿌리치고 다시 나가셨어요. 당시 5월22일 각목을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손에 잔가시가 많이 박혀 있어 어머니께서 가시를 빼주시고 손수 머리카락 깎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일 다시 나갔는데 가끔 집으로 전화를 해 ‘사신확인 일

스스로 죽게될 것이라는 것을 알 아버리고도 마지막까지 남아 싸우다가 광주부대의 총에 가슴과 다리를 맞아 산화해 간 박병규 열사/ 그의 죽음은 광주항쟁 10주년을 맞이하는 청년학생의 각오가 어떠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즈넉함

2천여 명의 넋들을 찾아간 군인들이 그대로 권좌에 앉아 있는 현재 광주는 폭풍전야의 고즈넉함, 그것이었다.

고요한 봄결속에 자그마한 모색의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민주항쟁은 광주시민과 전국민에게 미국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줄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광주항쟁을 통해 대중이 역사의 동력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미국의 식민지 안정화군도가 노골화된 현실에서 광주항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것을 5·18광주민주항쟁 동지회의 김태진씨는 말한다.

사실 현재 광주는 정부의 ‘특별보상법’의 3천만엔 보상이라는 문제로 여러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배상’이라는 입장과 ‘보상’도 배상의 의미로써 유족들의 힘든 생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

월 관련단체와 모든 민주단체가 5월광주투쟁을 버리고 있는 이유가 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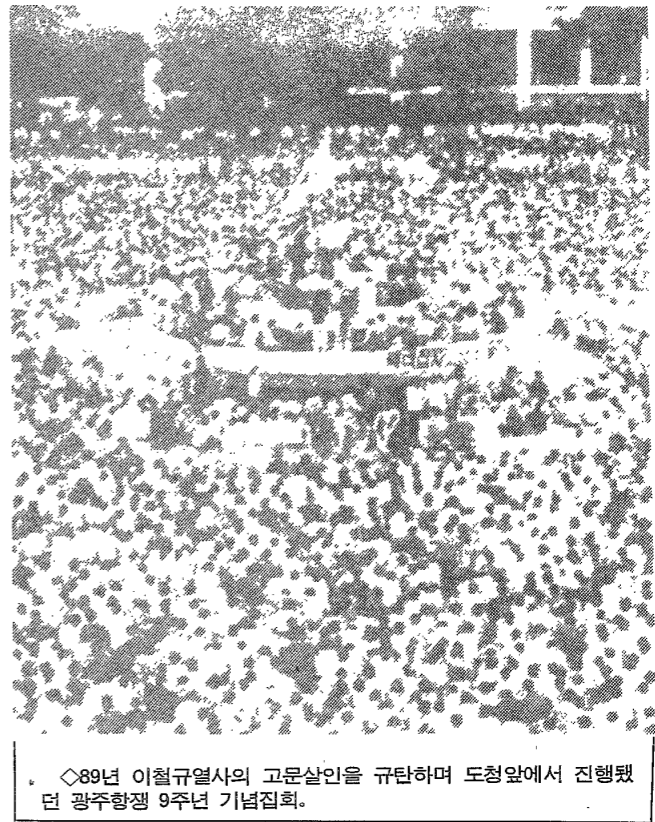
그것은 친미파쇼합성적의 3당 통합으로 손꼽힌 광주의 5월항쟁정신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다.

3당통합전까지라도 5월관련단체들은 광주민주항쟁10주년 행사는 추모와 치유의 차원에서 치른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당통합으로 광주항쟁의 진상 규명과 화해의 노력은 일시에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다.

1·22합동조직 다음날 ‘광주-전남 민족민주운동단체대표회의’는 “3당통합은 정권안정화 용모이며 총성없는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광주항쟁의 해례가 비방에 섰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4월7일 광주-전남지역 45개 5월및 제야단체가 총합력인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 및 민주기본권쟁취 광주-전남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결성되어 5월10주기투쟁



○89년 이철규열사의 고문살인을 규탄하며 도청앞에서 진행했던 광주항쟁 9주년 기념집회.



○지금 망월묘역에는 5·18 기간이 아닌데도 참배객들이 늘고 있다.

아함분쇄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 수 밖에 없는 해방의 날이다.

강산이 한번정도든 변했을 시간이 광주에 파헤쳐진 도청광장으로 청년학생들을 부르고 있었다.

2천여 광주 넋들의 신음이 제가 시기도 전에 미국의 식민지 안정화 구도로 가시화된 3당연합과 울산에서 KIS에서 전국에서 흩어 넘치는 노동자들에게 대한 탄압은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조국환반도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광주민주항쟁 10주년은 그렇게 동쪽으로 한반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80년 5월 광주의 혼들이 묻혀 있는 망월동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광주항쟁 10주년의 의무를 곱씹어 보고 있었다.

“어쩔던로 토요일이 아침에 망월동 열 가요”라며 외지에서 온 참배객에게 던져오는 운전기사이재씨의 말투는 경계반, 의심반이었다.

취재목적을 설명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긴 조금있으면 광주가 미어 터질때까지 일찍 온 것 잘 찰떡소”라며 웃는다.

망월동 가는길에 그렇게 만난 운전기사이재씨는 현정체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연신 기사에게 강조했다.

사연스럽게 자라나는 보리밭을 옆길로 망월동은 작년 그자리에 열

운상원 열사들의 특사이로 생소하지만 ‘박병규’라는 이름이 시야에 들어왔다.

“동국대학교 1학년 80년 5월27일 5월 5·18 광주민주항쟁에 참여하여 군부독재의 총칼과 맞서 싸우다가 산화하셨다는 묘비명과 고교생시절 찍은 것인 듯 스포츠머리에 교복치림의 사진이 비석앞에 놓여 있었다.

기자는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 27일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 돌아갔을 선배를 생각하며 숙연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참배를 끝내고 안내소에서 박병규 선배에 대해 물어보자 안내해주는 아저씨께서 박선배 동생인 박경순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어렵지 않게 박선배의 생전사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오빠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였어요. 말수적고 인성많은 오빠의 죽음에 저를 소위 운동권으로 나서게 했지요”라며 수줍분한 큰 누이같은 인상을 풍기는 박경순(28세)씨.

“80년 당시에 오빠는 동국대학교 전신원 1학년에 재학중이었어요. 시국을 걱정하시던 어머니께서 광주로 내려오시라고 해 내려왔다가 행정에 참여하게 되던 걸요.”

오빠는 내려오신 후 시애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셨고 어머니께서 ‘나가지 말

한다고 하면서도 농담으로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예언 것 같아요.”라며 당시 박선배가 항쟁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다.

박선배의 죽음에 관해서 박경순씨는 “26일 밤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예가 타게 기다렸는데도 오빠가 안돌아와 찾아 다니다가 29일 발표를 보고 알았어요. 하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혹시나 해서 상무관에 갔다가 사신을 확인했지요. 특히 오빠는 27일 마지막까지 도청사대에 포함돼 싸우다가 돌아가셔서 ‘폭도’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오빠의 죽음이후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88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라고 말했다.

80년 5월26일 계엄군이 도청전입이 시작되던 다음날 당시에 도청안의 학생지도부는 고교생과 여성들에게 돌아가라고 권유한다.

남이 있으면 모두 죽게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교생들은 모두 나가기를 거부한다.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으며 박병규열사도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다.

27일 새벽 광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 빠져나가고 전기가 끊어진 어둠속에서 도청사대는 저녁을 먹으며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27일 새벽 정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5·18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석기(47세·식당경영)씨는 “역사가 일어나는 문제보다 정부가 가해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상의 성격이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눈 몇푼으로 상처를 무마하려는 것은 광주를 두번 죽이는 것으로 광주시민이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보상법’은 국가가 직접행위에 의해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고 광주시민들이 주장하는 ‘배상’은 위법행위에 의해 저질러진 손해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상이 된다면 굳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이 정당화될 위험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므로 광주 시민들로서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를 두번 죽이지 말라”는 이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보상’이라는 불결적 대안만으로 생계까지도 곤란한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인 방정으로 인해 항쟁 1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시민들은 분노속에 5월투쟁을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와 동시에 광주의 5



○80년 5월 27일 최후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군사독재에 의해 살해된 박병규(당시 생년 1학년) 열사의 영정.

결해 조국이 부르는 4천만 국민의 신봉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송의장은 “광주5월투쟁은 단순히 모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세력이 모여 단결의 기운을 높이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로 중요하다”며 “5월투쟁과 6·7월의 반미, 통일투쟁으로 노경권을 퇴진시켜 민족자주정부를 세우야 한다”고 밝혔다.

오월의 그 거리에서

여러 광주시민의 분노와 울산에서 전국으로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투쟁의 열기가 모일 광주 도청앞은 지금 풍사로 모두 파헤쳐져 있다.

다분히 의도적인 공사와 옛 민중당회관을 지키는 백골단의 모습에서 80년 광주의 90년 광주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다시 생각해보자.

80년 5월27일 군사독재의 허리를 강타했던 도청사대가 남겼던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도청을 사수하고 군사독재를 끝장내자던 그 말들, 우리 동양의 선배 박병규 열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조국해방의 민주쟁취전선에서 세상이 파헤쳐지는 도청을 보며, 마지막 발악의 민자당을 보며 다시 싸우고 싶다는 열사들의 무언의 소리를 들었다면 환황일까.

물론 그 소리가 직접 들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귀에서 들리는 소리만이 소리로만 열사의 부름은 시신에서, 5월의 거리를 가득 채운 청년학생들의 울며짖는 단결의 손바닥에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때 그들은 모두 내자식이다”라고 말하는 한 유족회원의 말씀에서 90년 광주는 다시 그 5월의 함성으로 폭발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권준주**)

독일·소련 전학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한상공모

○**논제**

- 한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남북연합'의 실질적 과제
- 남북한 평화정착 및 신뢰조성 방안
- 대학인의 통일역사와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
- ※ 논제중택 1

○**대상** 대학(대학원) 재학생

○**시상**

- 최우수작 1편: 국토통일원장관상 및 부상 100만원
- 우수작 2편: 국토통일원장관상 및 부상 각 50만원
- 가작 5편: 국토통일원장관상 및 부상 각 30만원
- 경선 5편: 국토통일원장관상 및 부상 각 20만원
- ※ 최우수·우수·가작 입상에 대해서는 공산체 연구회 부어

○**마감** 1990년 8월 30일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80매 내외

○**발표** 1990년 10월중(개별통지)

○**보낼곳** 국토통일원 교육홍보국 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로 77)

○**기타**

- 응모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성명과 주소(전화번호), 소속대학·학과 명기
- 논문제출시 계약증서 1부 첨부
- 상세한 내용은 국토통일원 (☎738-7522) 또는 소속대학 통일문제 연구연구소에 문의

국토통일원

'90 여름방학 해외어학연수

공부도, 여행도 짝짱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유명한 광화문영어학교가 이번 여름방학에도 미국·영국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행커지 아카데미의 버클리학과 필라델피아학과, 탐과학교들과 영국 런던의 웨스트모어 칼리지 오브 잉글리쉬, 인터내셔널 행커지센터에 입학하여 학교근처의 절경한 민박가정이나 대학 구내 기숙사에 머물며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여행 중 명승지 문화 여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코스**

기간/1990. 7. 8-8. 6(29박 30일)
모집인원/각코스 30명 인원

1. 버클리학과/샌프란시스코, 몬트리, 카펠,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비벌리, 시카고, 하와이등
2. 필라델피아학과/필라델피아, 뉴욕, 워싱턴, 시카고,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하와이등
3. 탐과학과/탐과, 올란드, 뉴욕, 워싱턴, 비벌리,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등.

○**영국코스**

기간/1990. 7. 7-8. 7(31박 32일)
모집인원/각코스 30명 인원

1. 런던(ILC 학교)/런던 옥스포드, 브라이튼, 파리, 마드린드, 로마, 나폴리, 폼페이, 제네바, 비엔나, 하이델베르크등.
2. 런던외의 FCE 학교-코치관/런던 옥스포드, 리드, 케일, 캔터베리, 도버, 칼레, 파리, 제네바, 밀라노, 플로렌스, 로마, 베니스, 인스브루크,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등.

여권과 비자의 수속은 전담되는 (주)세브라행사에서 해드립니다. 등록 절차 문의는 광화문 영어 학교 언어교육원으로 해 주십시오.

세브라행 언어교육부설 언어교육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 호텔 위·전화 (02)737-4641(대)

미래지향의 영화를 (주)삼호필름

DRIVING MISS DAISY

1990년 3월 26일, 제62회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여, 전세계가 열광한 바로 그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감독/브루스 베리스포드 (주)세브라행 (주)세브라행 (주)세브라행 (주)세브라행

● 제62회 아카데미상 4개 부문 수상 (최우수 작품상/최우수 각본상/최우수 여우주연상/최우수 여우조연상)

● 제47회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최우수 여우조연상/최우수 각본상/최우수 여우조연상)

● 제4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최우수 감독연기자상 (은곰상) 수상 (주)세브라행 (주)세브라행

대형주차장완비

개봉! 개봉!

브루스 베리스포드

명보아트홀 명보극장

명보아트홀 732-2131/2

명보극장 274-2121/2122

심층분석

민자당 창당이후 자행된 반민중적 행태를 조명한다

I. 민자당 창당배경

“신창당은 국민의 뜻이었습니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구국의 결단이었습니까”

“저소아래는 정국구도속에서 이계야 평가될 것 같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정·민주·공화 3당은 민의에 거스르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야합을 이뤄내고야 만 것이다.”

이러한 반민중적보수대연합으로 국민대중은 물론이고 민족민주세력에게도 커다란 혼란을 주었다. 물론 학생 운동권과 민주세력에서는 88년 대통령선거이후 보수대연합의 출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견되었으나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또 이렇게 험악한 흉물로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86년 총선거이후 87년 박정철교문살인사건을 계기로 민주민주운동세력은 활로를 찾기 시작했고 드디어 국민운동 분부결성으로 정면한 6월투쟁을 전개한다. 이후 88년 대통령선거 직전 6·29선언으로 민주세력결집의 호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김대중의 개인적 정치야욕에 민정당이 대선에 승리, 또다시 민주민주운동은 전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노태우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6공들이 90년까지 2년여동안 군사정권은 ‘속된 강경’의 민주개혁으로 자신의 지지세력 기반에 고심하자 그 적대세력인 평민·민주·민족민주세력을 이데올로기 공격과 각개격파로 힘을 약화시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민주민주세력의 성장으로 그때까지의 전술이 이후에 비현실적임을 깨달은 집권세력은 새로운 정국구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때마침 평민당은 ‘제1야당’이라는 명분이 급급,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결국은 집권세력을 옹호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고 민주당은 ‘정통야당’에서 ‘제2야당’으로 저위가 격화되면서 지도력의 이완으로 당내부의 개혁적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집권세력은 ‘경제위기’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치안정’을 꾀며 보수층의 ‘탈정치화’를 유도, 결국 거대여당 민자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평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명분과 호남지역의 확실한 지지기반이 있었다는 점, 합당에 참여할 경우 분배될 지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래 오하며 합당후에 홀로남아 민족민주세력의 구심점으로 수많은 지분을 얻으려 3당합당에서 ‘제1야당’인 ‘거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떨어지 나갔다.

위에서처럼 민자당 출현 배경에는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치세력들간의 순수한(?) 이해관계가 얽혀 나타난 것이다.

II. 민자당 출현이후의 반민중적 정책

민자당은 탄생배경부터 민중적 성향을 띠지 않고 집권세력층의 의도로 생겨난 것인 까닭에 창당이후에 집권세력이 수반한 정책은 지금까지의 민주민주운동의 복음 더욱더 흠이없는 내용으로 진행해 온다.

(1) 노동운동탄압

우연인지 계획적인지 모를일이지만 공교롭게도 민자당이 탄생하던 1월22일은 전노협 창립대회가 성공관대에서 열리던 날이었다. 이날 단병호위원장을 선출하는 등의 행사를 하고있는 창립대회장에 경찰을 투입 1백50명의 노동자·학생을 연행함으로써 노동운동탄압의 신호탄을 울렸다.

이러한 2월1일에는 전노협가맹노조와 조적분규가 일어난 전국의 1백60여개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의 업무조사권을 발동, 조합비징검·규약적법정여부·조합비율 전노협기금으로 지출여부등을 집중조사하여 마창노련등 70개 핵심사업장의 노조를 노조업무조사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업무조사거부를 고발위협 △단체교섭거부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상공부도 △임금인상과다업체 △무노동무임금 지키지 않은 업체 △노조에 자금지원을 해준 업체등에 대해 경제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어음유류거부 △원자재공급중단 △제품불매조치를 내렸다.

또한 지난 3월30일에는 마산·창원·울산등 광단지역 노조 핵심간부 2백여명의 신상카드를 작성, 성향·친구관계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개인별 순회시킴으로써 ‘블랙리스트’가 폭로되었다.

최근 사회적 핫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공권력 투입도 역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노동운동탄압의 극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비적 경제정책의 미비등을 이유로 91년으로 연기되었다가 이번엔 언제 실시하겠다는 언급도 없이 무작정 연기에 버린 것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91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일정표까지 들고 나오며 “블로소득·투기풍조가 만연하여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부의 정당성에 관한 의문을 낳아 ‘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라며 실명제 실시를 역설했었다.

또한 실명제는 노태우대통령도 대선기간중 공약했던 것으로서 6공화국의 ‘개혁의지’를 나타내는 간판으로 등장해오던 금융실명제가 민자당 창당으로 경제팀 개각이후 새 경제팀이 실시한 첫번째 정책이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의한 실명제 유보였던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금

에서는 민자당이 숫자로 밀어붙인 개정 사항학교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사항학교법에는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소유 △교원임기는 10년내에서 학교법인이 정하고 △승진제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척의 해당법인 대학 총장학위인 허용등의 특소조항을 담고 있어 학교 이사장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준 형태로 제정되었다.

민자당은 이에 대해 사회적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이었지만 학원기법, 즉 ‘가진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여론은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 사항학교법 ‘개각추진’은 민자당의 의지에 일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이해도 크게 작용

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도 없던 ‘재단법률’과 친·인척의 총·확장 임명허용’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민자당내 사립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이 8명이 나 되었다. 이러한 의원자신과 민자당을 위한 법안투표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거대여당 민자당의 가동할 힘이었다. 교권을 독점하고 교원을 제단에 종속시키는 이법은 민자당 정권이 기층의 국민보다는 기득권 소유자의 대변자로서의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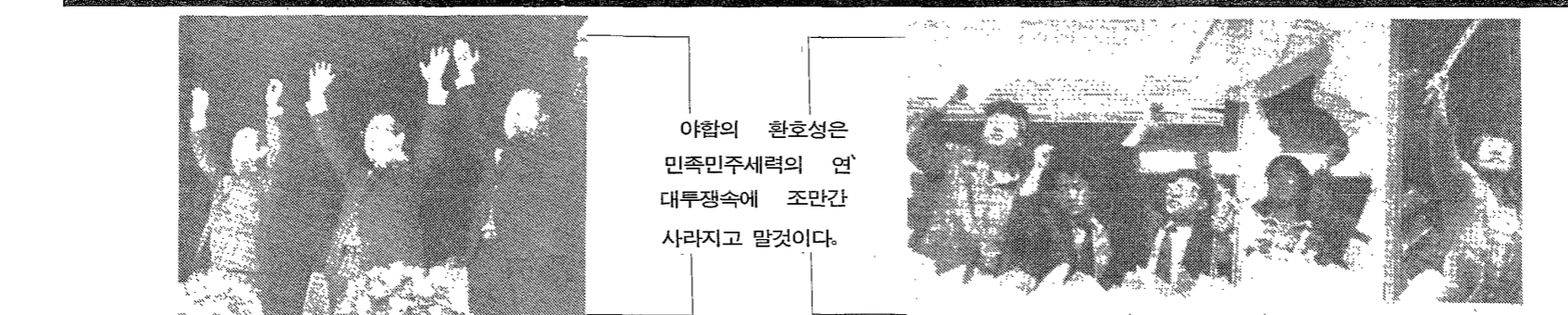
(4) 광주보상법 처리 강행 민자당은 지난 3월10일 국회 광주특위등 7개 특위해체와 광주보상법처리를 남치기 형식으로 단독 처리했다. 광주보상법은 광주민중항쟁 유가족에게 얼마의 돈을 지불함으로써 광주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었다. 즉 광주학생의 개인자와 친상유족은 접이준 채로 돈으로 임박을 하고 끝을 보자는 식이었다. 더군다나 이번 법안 통과에 야당 의원이 몰세음으로 말리는데도 같이 몰세음으로 응수 기이로 법안을

제 연기를 들고나와 평민당측 “연기시한을 7월이나 8월로 못박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민자당측은 “평민당의 실력저지로 정국파국을 막기 위해서 논의 연기는 어쩔수 없었다”며 결국 또 무기한 연기되므로써 공약을 파기해 버렸다.

민중화의 커다란 도약인 지방자치제를 지방민이 그 지방의 주요인사로서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는데 지자체가 시행될 경우 중앙 집권세력으로부터 미치는 영향력의 파급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우려, 일찌감치 지자체를 원천봉쇄(?)하여 장기집권의도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6) 불가늠 전세월세값 폭등과 주거폭락 지난 3월 한달동안에만 1.3%의 물가가 올라 올해 정부약계 목표인 5~7%의 불가인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3월까지 3개월간의 물가인상이 3.2%에 이르러 이러한 추측은 더욱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있다. 물가인상은 지난해 증권시장 부양과 기업자금난해소를 위해 7조원이 풀렸고 4·3보결정거를 앞두고 전기자금이 쏟아진데다 민

민중탄압 획책이 ‘구국의 결단’ 인가



국민의 의사 무시한 정치세력간의 기만적 야합 노동운동 탄압등 집권총위주의 정책으로 시종일관 5월 총회로 국민 모두가 반민자당투쟁의 주체될때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고소했다. 이는 민자당이 전노협 결성시 예고했던 전노협 외해를 필두로한 노동운동탄압이 본격적인 실천활동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자당의 노동운동탄압의 기본구도는 이미 1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참석회의 ‘노사안정대협의 의’에서 △전노협과의 △노동쟁의의 공권력투입 △임금인상억제등의 방침을 세워놓고 구체적 방안으로 △전노협 가입노조 업무조사 실시 △단위노조 지원활동은 ‘3자개입금지’로 처벌 △전노협 관련집회 원천봉쇄등으로까지 마련되었다. 이후 실제로 민자당은 전노협지회 분해, 단병호 위원장과 권용목 중앙위원 등 핵심간부들을 ‘3자개입’과 ‘집시법’등 위반으로 구속하는 한편 노조업무조사에 불응하는 노조대표들을 대거 고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조사 불응이라고 구속된 전례가 없고 법정최고형도 3개월 인정을 감안 고발당시 이에 ‘3자개입’과 ‘업무방해’의 혐의를 덧붙여 구속하여 노동운동탄압의 용모를 표면화시켰다. 이러한 강경조치속에서 전노협합법총용은 노조와 회사측에게도 가해져 △어음합법보류등의 금

이러한 일련의 노동운동탄압은 민자당 출범이후 ‘노동운동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노동운동을 매도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개혁이 마지 운동에서부터 기인된 것처럼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와 더불어 노동운동탄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동법개악’ 움직임이다. 상공부에서 마련한 노동관련법개정안은 기업주 편향의 개악을 목적으로 실시하여 민자당 내부의 노동부에서조차 실사가 ‘비현실적’이라 평가할 만큼 사용자편향의 내용을 담아 노동운동계의 거센반발을 초래했다. △실명제노동시간 연장 △월차 휴가제 △전입·복근 임금의 인하 △무노동무임금원칙 명문화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법 개정점토안은 그나마 열악한 노동환경을 아예 더욱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반증이기도 했다.

(2) 금융실명제 무기한 연기 지난 3월23일 민자당은 ‘금융실명제’ 무기한 연기를 전격내행했다. 86년 처음실시하려다가 88년으로 유보, 88년 다시 실명제실시위한 준

용실명제가 △다소 이상분적 측면이었고 △실시할 경우 자국의 외국 유출이 우려 성장둔화가 예상되므로 실시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명제 유보 뒷면에는 장기집권모드로 점철된 민자당이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정경유학을 통한 지속적인 정치자금 필요에 따른 상에서 제발기업 목에 칼을 대는 금융실명제 실시 논의가 나오자 재벌등 지지기반에서 크게 반발을 해 유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박태준 대표위원이 민자당에 남이있게 되면서 포항제철 회장을신임으로 당연히 전정권과 밀착되어 실명제 실시 유보에 목소리를 가졌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국민 대다수의 입장에서 정경·경제의 통상적인 ‘뒷거래’를 없앨수 있고 공정한 경제정책을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명제실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바램을 전혀 무시한 민자당의 실명제 유보결정은 정치·경제권의 국민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3) 사항학교법 개악 지난 3월16일 제148회 임시국회

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도 없던 ‘재단법률’과 친·인척의 총·확장 임명허용’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민자당내 사립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이 8명이 나 되었다. 이러한 의원자신과 민자당을 위한 법안투표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거대여당 민자당의 가동할 힘이었다. 교권을 독점하고 교원을 제단에 종속시키는 이법은 민자당 정권이 기층의 국민보다는 기득권 소유자의 대변자로서의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4) 광주보상법 처리 강행 민자당은 지난 3월10일 국회 광주특위등 7개 특위해체와 광주보상법처리를 남치기 형식으로 단독 처리했다. 광주보상법은 광주민중항쟁 유가족에게 얼마의 돈을 지불함으로써 광주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었다. 즉 광주학생의 개인자와 친상유족은 접이준 채로 돈으로 임박을 하고 끝을 보자는 식이었다. 더군다나 이번 법안 통과에 야당 의원이 몰세음으로 말리는데도 같이 몰세음으로 응수 기이로 법안을

제 연기를 들고나와 평민당측 “연기시한을 7월이나 8월로 못박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민자당측은 “평민당의 실력저지로 정국파국을 막기 위해서 논의 연기는 어쩔수 없었다”며 결국 또 무기한 연기되므로써 공약을 파기해 버렸다.

민중화의 커다란 도약인 지방자치제를 지방민이 그 지방의 주요인사로서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는데 지자체가 시행될 경우 중앙 집권세력으로부터 미치는 영향력의 파급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우려, 일찌감치 지자체를 원천봉쇄(?)하여 장기집권의도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6) 불가늠 전세월세값 폭등과 주거폭락 지난 3월 한달동안에만 1.3%의 물가가 올라 올해 정부약계 목표인 5~7%의 불가인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3월까지 3개월간의 물가인상이 3.2%에 이르러 이러한 추측은 더욱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있다. 물가인상은 지난해 증권시장 부양과 기업자금난해소를 위해 7조원이 풀렸고 4·3보결정거를 앞두고 전기자금이 쏟아진데다 민

- ... 지난 1월22일 합당선언이후...
○... 만 3개월 보름만에 창당대회...
○... 를 갖는 민자당 출범에 즈음...
○... 하여 그간 민자당이 수립해...
○... 왔던 정치를 하나하나 분석해...
○... 여 민자당의 본래 실력을 밝...
○... 하고자 노력했다. 이들로 민...
○... 자당을 쉽고 정확히 이해할...
○...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자당이 성장위주의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긴축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계속 돈이 누적되면서 전세·월세값 폭등, 공중·서비스요금 대폭인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전세·월세값은 실제 상승률이 전세 32.4%, 월세 19%를 나타내어 서민의 내집마련꿈은 무산되어 버렸다. 이러한 집값안상은 내집마련은 커녕 현상유지조차 힘들어져 일가족 자살등 저급까지 1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기기에 실명제유보로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는 수십조원을 따져보면 그야말로 물가는 ‘고삐풀린 말’이 풀이되어 버렸다.

이에 발맞추어 경제변동에 가장 민감하고 경제변동을 예고해주는 주식시세가 4월14일 21.3%의 폭락을 보였고 26일에는 전일보다 무려 28.9%나 하락, 중시사상 최대 폭락이자 726.11이라는 주가저수를 기록, 역사 최저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민자당 밀약설 파문, 현중·KBS사태등 사회전반에 걸친 불안감조성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민자당 출범이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따른 수정을 요하는 가시화된 근거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7)기타 민자당은 KBS사태를 계기로 민자당의 언론장악요구가 드러났고, 무당폭락, 재계발지역 세입자 월가, 명신요고등 사학재단 비리에 공권력 투입등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행위들을 일삼았다.

또한 김영삼의 방사로 남북교차승인을 확대하고 국군조직법 개정안 일방 처리등으로 분단고착화를 통한 장기집권구도를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고 있다.

III. 민자당 창당대회에 즈음하여 바로 오늘 9일에 민자당 창당대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1월22일 합당선언이후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민자당의 모습을 관망하면 그 반민중적 작태에 몸서리쳐지지 않을 수 없다.

88년 대선때 김영삼이 임버트처럼 의외된 ‘군정중석’이 1년반사이 ‘군정안주’로 바뀌어 민자당에 합류할 때부터 민자당은 국민의 것이 아닌 지배세력의 자본 분배장이 되어버렸다.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민자당의 장기집권모호는 이번 5월광주총회등을 계기로 꾸준히 성장해온 민족민주세력과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민자당 창당 자체를 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할지라도 5월의 투쟁기조 속에서 민자당의 반민중성은 충분히 폭로될 수 있을 것이다.

민자당 창당이 ‘구국의 결단’이었던지는 5월이후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며 그판단은 현명하고 정확할 것이다.

다시상 반민중적 민자당의 형태는 내버려둘 수 없다. 5월 광주투쟁을 도화선으로 국민모두가 민자당정권에 투사가 되어야 할 때이다.

(남궁은 記者)

현대중공업·KBS공권력 강제집안 규탄기획 광고. 참을 수 없는 분노는 투쟁의 불길로 타오른다! 1. 미로안으로 부터의 소식, 2. 여이도로부터의 소식, 3. 한만도 전역에서, 4. 우리들의 분노.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회 사회특집분과. <서대기원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현대그룹광고를 거부합니다.>

'안개정국' 주도권 잡을수 있는 계기

- ... KBS, 현대중공업의 파업투쟁, 전농의 결성 ...○
- ... 등으로 국민대중의 자주적 진출이 정세를 급 ...○
- ... 격히 고조시키는 가운데 오는 18일에 광주항 ...○
- ... 쟁 10주기를 맞는다. 이러한 매일수목 민족 ...○
- ... 민주운동세력은 냉철한 주객관적 정세인식이 ...○
- ... 필요하다. 본보에서는 이에따라 두차례에 걸 ...○
- ... 처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번호에는 주로 현재 ...○
- ... 의 정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호 ...○
- ... 에는 앞으로 전국민을 단결시킬 정치적 목표 ...○
- ... 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독자여러분의 많 ...○
- ... 은 관심과 질타를 바란다.
- ... (편집자) ...○

I. 들어가는 말

- 시커먼 안개정국, 정세 주도권을 누가 먼저 잡을 것인가

정세는 4·3 유상·전원 및 대구서 갑 보선선거에서 민자당의 참패 이후, 자신감을 획득한 민중의 자주적 대중투쟁을 가일층 촉진시키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KBS의 자주인론 사수투쟁, 현대중공업의 파업과 전국적 동맹파업의 확산을 필두로 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 진출은 정세를 급격히 고조시키면서 중대한 대립국면, 그야말로 '그 누구도 예측 못할 시커먼 안개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매일수목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약점에 투쟁력을 집중하고, 주체대중의 약점을 보완·강화하려는 냉철한 주·객관적 정세인식을 필요로 한다. 주·객관적 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정치적 목표, 대중투쟁의 형태, 집중적 계기의 포착이 능란하고 수준에 맞게 현실투쟁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또한 이에 입각한 구체적 운동속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결집적으로 차근차근 강화해 갈 수 있는 것이다.

II. 그동안의 민자당 일당독재음모 분쇄투쟁에 대한 간략한 평가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정세를 옹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적 역량을 기본으로 주체적 역량이 발휘되어 투쟁대상인 적과 역활하는 역동적 과정과 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 변화하는 현실속의 현상이 아닌 내면본질을 지류가 아닌 분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속에서 현재 변화의 중심과 동향을 찾아낼 수 있다. 상기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KBS인론사수 투쟁과 현대중공업 파업투쟁이다.

따라서 이 양대투쟁이 일으킨 민중투쟁의 동력을 꿰뚫어 보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투쟁현황과 가능성을 타진해보아야 할 것이다.

1. 반민자당투쟁의 1차적 촉발계기 - KBS방송 자주화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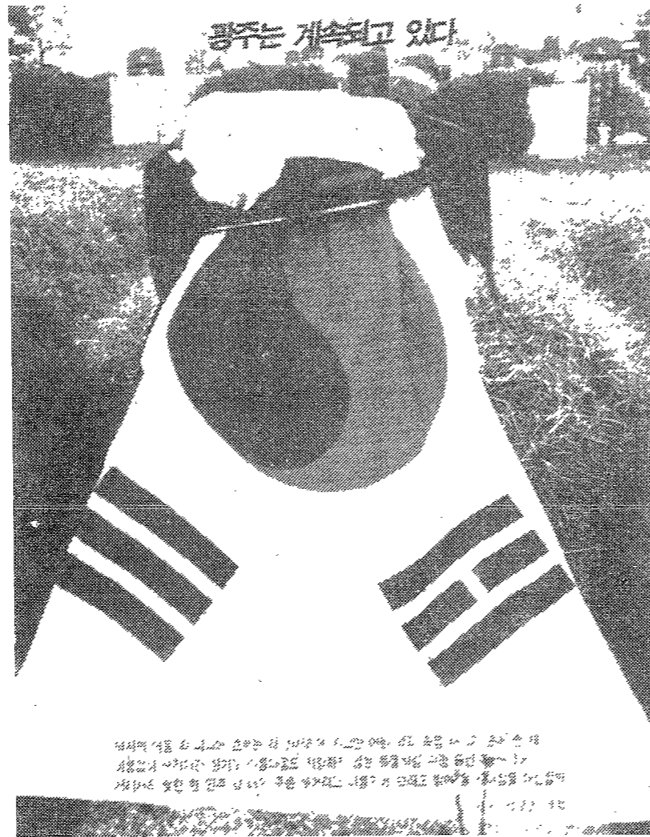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구도인 방송장악음모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KBS사원의 파업투쟁은 민자당과의 직접적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비록 정부는 집요하게 노조의 파업을 노조의 인사권 침해, 국민을 불모로한 행위라면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 기도했으나 이는 전국민적 지지·지원과 호응(80% 이상)이 공권력투입 등 정부의 지나친 대응이 원인이라고 비난)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지지와 호응이 민자당의 장기집권음모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기류를 형성함으로써 반민자당 투쟁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KBS투쟁은 일부의 성격이 아니라 민자당의 방송장악음모에 맞선 결연한 투쟁으로 광범한 반민자당 전진을 형성하였고, 이는 4·3보선 선거에서보다 한차원 발전되어 'KBS·현대중공업 노조단일 지지 국민회의' 'KBS지키기 시민모임' 등의 대중조직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대중의 민자당에 대한 저항과 분노가 완만하고, 잠재되어있던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고 있고, 이것이 집중된 정치적 계기에서는 격극적 행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2. 대중운동의 급격한 진전을 이룩한 현대중공업의 파업투쟁

구속자세방·단체협약이행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 현대중공업의 파업투쟁은 4·3보선선거 이후, KBS투쟁으로 국민적 반민자당투쟁의 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승파장에서 전개된 정치적성격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다. 현대중공업의 파업투쟁은 고양되고 있는 정세의 정치적 대립을 첨예화하고 대중투쟁의 자신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획기적 기여를 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KBS인론사수 투쟁과 현대중공업 파업투쟁이다. 따라서 이 양대투쟁이 일으킨 민중투쟁의 동력을 꿰뚫어 보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투쟁현황과 가능성을 타진해보아야 할 것이다.

(1) 광주 항쟁 10주기를 앞둔 정세분석



△자료사진 = 일誌 5월호

로 진출할 수 있는 현재 노동운동의 수준과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국민대중의 현재적 민자당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정치·경제적 위기의 심화과정에서 구조화된, 그리고 잠재적상태가 아니라 폭발을 내외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3. 그동안의 민족·민주운동에서 보여준 역량의 수준과 미국의 대응전략

우리는 그 동안의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몇가지 교훈을 얻었다. 먼저, 국민대중의 반독재의식화 수준은 이제 정치·경쟁의 문제로 집약되고, 구체화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이다. 즉, 즉각적 분노차원에 이어서 양대투쟁을 거치면서 정치적, 즉 노태우 정권 퇴진으로 집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쟁은 정치적 목표를 정확하게 내걸고 이를 집중시켜, 운동력으로의 전화를 꾀하는 것과 정치적 문제의 집중된 계기와 사안에 효과적인 대중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5월9일 '민자당 창당대회' 5·18 광주항쟁 10주기는 범국민적 사안으로 확대되어 대정치권력투쟁 - 노태우정권 퇴진 행동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조직화의 측면에서는 국민연합의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연합, 통일전선을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의 단결을 실현시켜, 민주대연합의 토대를 차분히 구축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대연합의 구체적 실현은 86~87년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승리적 투쟁의 축적과정에서 차곡차곡 견인되어지고, 이는 그 폭발적 계기와 정치적 목표표 1차적 단결을 이루어 냄으로써 6·10대항쟁을 목표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얼마나 반민자당투쟁을 강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반미는 곧 범민족적 역량의 단결의 으뜸가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대응은 남한민중의 반민자주의의 고양수준, 주체역량의 발전수준에 정비례한 형태로 '저 강도 경쟁전략'의 구현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의 구체적 징표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핵심에 대한 탄압-검거·대중과의 분리쇄쇄, 조직화되지 않은 중·하층대중을 목표한 허구적 경제안정조치(현재 개발의 물적 토대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서 허구적 공헌일 뿐이다)와 접목되어 이를 민족민주세력의 영향력에서 동요·이탈하게 하는 술책이다. 그 이외엔 경솔하게 남한상

민주대연합의 토대 마련 위한 초석 광주항쟁, 미국과 현정부의 약점 현·중·KBS투쟁 통해 대중운동 고양

황에 대한 평론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정치공작(예, 그레그의 김영삼 초청 등에 의한 것 등)을 가속화 해 낼 것이다.

5월7일 노태우의 대국민담화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수호 - 정치적 노동운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앞으로 핵심간부의 체포가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며, 민족민주운동세력 또한 이에 대응한 전면전(보은·강화를 위한)이 불가피할 것이다.

III. 광주항쟁 10년의 의미

5·19전대협총회와 5·20민중대회에 대해서

광주10주기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5월9일 투쟁과 그 이후 12일 전국적 지역집회에 의해 정세의 반전을위한 공격을 얼마나 효과

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이는 대중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으로 실제적 행동에서 동요(잘못까하는)를 극복하고 완강성·의지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9일·12일 투쟁에 의해 난관과 우여곡절은 일정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의 (체제전환)의 초입에 서 있는 광주항쟁 10주기는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지속되어 왔던 광주·5공청산투쟁의 성과에 의해 '광주항쟁 10주기 투쟁'의 합법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계기는 접이 다.

둘째로, 현 민자당의 창당이 광주·5공청산의 기반적 타협처리 과정속에서 진행된 것이라 할때, 광주항쟁10주기는 민주실현의 기반적 계로서의 광주·5공청산의 의미와 현 민자당의 분쇄라는 의미가 정세속에서 집중되는 정치적 계기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진정한 광주·5공청산과 민주개혁, 그리고 참신한 민주정치의 실현은 오직 노태우정권 퇴진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분명히하고 광주항쟁 10주기를 맞는 5·18을 계기로 국민적 행동전의 개시를 선언해야 한다.

셋째로, 광주항쟁 10주기는 기간에 축적된 반미의식의 대중적 확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87년 대투쟁을 경험하면서 '자주없이 민주없다'는 점을 똑똑히 확인했다.

즉, 광주항쟁에 미국의 직접개입·민자당의 야합공작, 배후조종, 내간간첩, 반대투쟁을 거세게 벌여야 한다. 이러한 거센 반미투쟁과 투쟁의 가속화는 파쇼는 거대한 자원이자 자원의 차관함으로써 자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진정한 통치능력과 권한은 파쇼에 있지않고 미국에 있다.

넷째로, 광주항쟁은 분단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회성 계엄사령관은 담화를 통해 "광주에 고정간첩이 침투해 있다"고 했으며 미국은 광주항쟁기간 동안 '북한의 요원에 의한 남침가능성'을 전제하면서(실제 유전선에서는 어떤 군사적 긴장이자 이들도 없었다고 확인된 바 있다)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호소했다. 어떠한 투쟁도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투쟁은 무의미하다.

다섯째로, 광주항쟁 10주기는 현 정세에서 민주대연합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이다.

이른 특히 동요계층·세력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를 부정하는 자는 오직 파쇼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은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광주총회투쟁을 통해 대중적·범국민적 힘의 집결을 이루어 냄으로써 동요계층에 신심을 주고 민중의 편에 뛰어세움으로써, 6월10일 국민적 항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유리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보수야당, 특히 평민당의 정치적 기반을 최대한 발돋움시켜냄으로써 자체건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김대중의 광주·5공청산의 기반적 타협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반민자당 투쟁에 적극 동참요구 하라는 민중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중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두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해야 한다.

현정세는 우리가 원본 원치않은 전면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대협 90년대 정세전략에서는 90년을 '주체역량의 조직, 사상적, 대중적 대대구축기'라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주체역량의 조직 사상적인 사람의 준비, 대대세력으로 민원만한 대중적 토대가 아직 체제전환기의 전면전을 대비할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주체역량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투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현시기 가장 중요한 고안거리로 된다고 본다. 이러한 매일 수목 각부의 결의·결단과 중요하다. 대중의 분노가 확대되고, 주체역량을 이를 받아 안을 준비가 부족한 상태의 극복은 각부의 결단과 의의, 희생적 봉사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그는 운동세력보다 자기 권력능력과 토대가 본뜬 것으로써 진화세력이 이를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결단과 투쟁의 결실을 맺어 줄 민족·민주운동을 보위하는 길이다. 또한나누는 주체적 역량과 전 국민을 단결시킬 정치적 목표가 본명해야 한다.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성할 수 있는 계기이다. 이는 특히 동요계층·세력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를 부정하는 자는 오직 파쇼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은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광주총회투쟁을 통해 대중적·범국민적 힘의 집결을 이루어 냄으로써 동요계층에 신심을 주고 민중의 편에 뛰어세움으로써, 6월10일 국민적 항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유리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보수야당, 특히 평민당의 정치적 기반을 최대한 발돋움시켜냄으로써 자체건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김대중의 광주·5공청산의 기반적 타협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반민자당 투쟁에 적극 동참요구 하라는 민중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중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두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해야 한다.

IV. 비상사국 돌파를 위한 청년학생의 자세

현정세는 우리가 원본 원치않은 전면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대협 90년대 정세전략에서는 90년을 '주체역량의 조직, 사상적, 대중적 대대구축기'라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주체역량의 조직 사상적인 사람의 준비, 대대세력으로 민원만한 대중적 토대가 아직 체제전환기의 전면전을 대비할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주체역량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투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현시기 가장 중요한 고안거리로 된다고 본다. 이러한 매일 수목 각부의 결의·결단과 중요하다. 대중의 분노가 확대되고, 주체역량을 이를 받아 안을 준비가 부족한 상태의 극복은 각부의 결단과 의의, 희생적 봉사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그는 운동세력보다 자기 권력능력과 토대가 본뜬 것으로써 진화세력이 이를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결단과 투쟁의 결실을 맺어 줄 민족·민주운동을 보위하는 길이다. 또한나누는 주체적 역량과 전 국민을 단결시킬 정치적 목표가 본명해야 한다.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점은 다음호에 제게 보겠다.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럭키금성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 미래산업까지 - 럭키

생활·산업자재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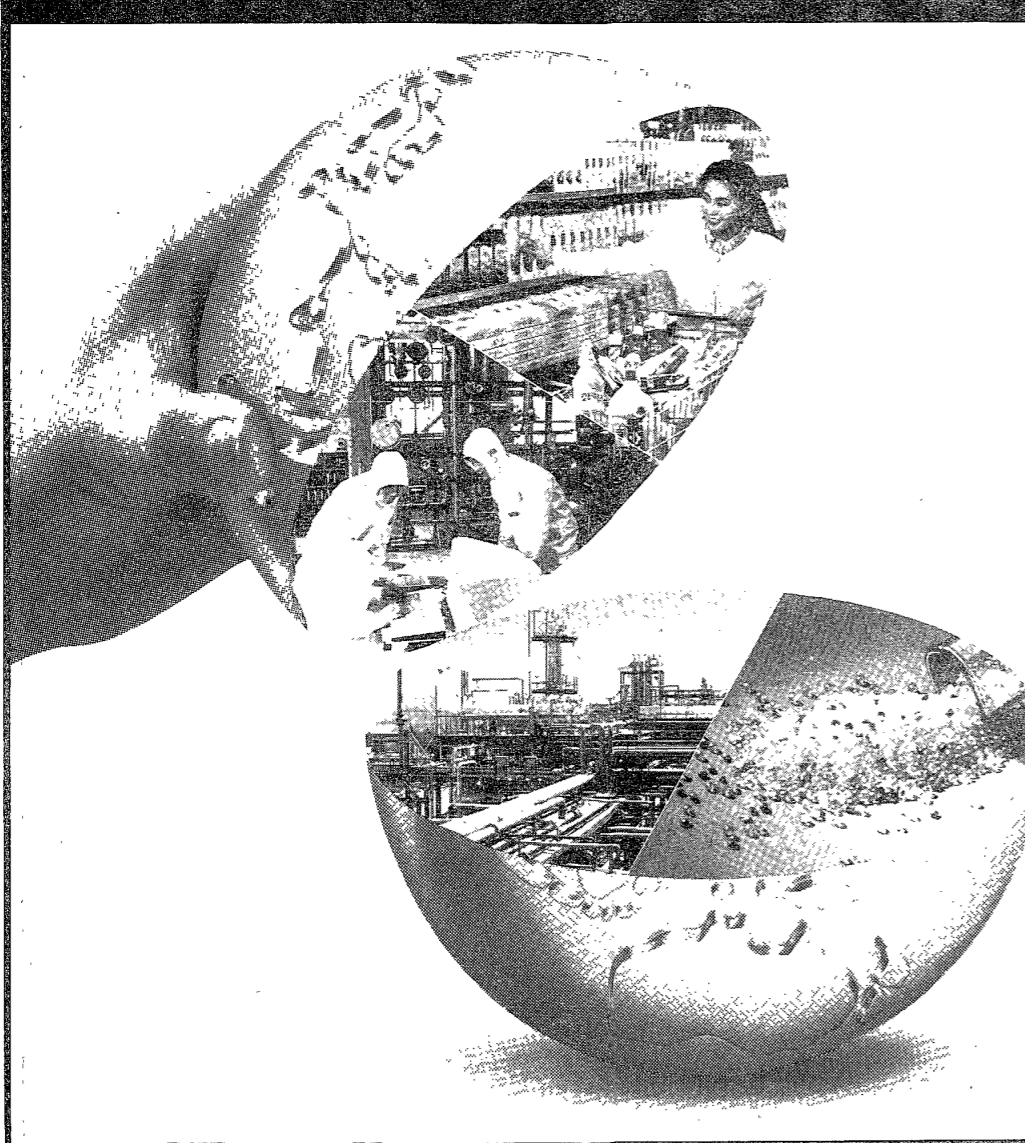
- 프라스틱 1사업부: 하이사시, UBR, SMC, 물탱크, 온돌파이프, 자동차부품 등
- 프라스틱 2사업부: 모노퓨, 락스톤, 노브롱, 카펫타일, 민속장판, 비닐벽지 등
- 생활용품사업부: 수퍼타이, 하모니, 페리오치아, 자민상부, 알로에비누, 풍뿔 등
- 화장품사업부: 아드프, 미네르마, 에스, 헤레나루빈스타인, 카이저 등
- 정밀화학사업부: 분산염료, 무공해염색제, 계면활성제, 그라스 화이버 등
- 의약품사업부: 인터페론, B형 간염백신, 인간성장호르몬, 식품첨가제 등

회성부문

- 회성 1사업부: PVC 스트레치트 레진, 케스트 레진, PVC 컴파운드 등
- 회성 2사업부: DOP, 옥탄올, 부탄올, 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등
- 회성 3사업부: ABS 레진, SAN 레진, PS 레진, EPS 레진 등
- 엔지니어링프라스틱사업부: PMMA, PBT,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컴파운드 등
- 폴리머렌지니어링사업부: 선형지밀도 폴리머렌, 초저밀도 폴리머렌 등

국내의 합작회사

- * Lucky Allied Plastics Corporation
- * Lucky Fiber Glass Corporation
- * Lucky Dow Chemical Ltd. (EPON)
- * Lucky D. C. Silicone Co., Ltd.
- * Lucky Hoechst Corp. (HOPE)
- * National Plastic Co. (Saudi Arabia)
- * Henkel Rika Sdn. Bhd. (Malaysia)
- * Lucky Palmco Sdn. Bhd. (Malaysia)
- * Thai Wah Lucky Chemicals Co., Ltd. (Thai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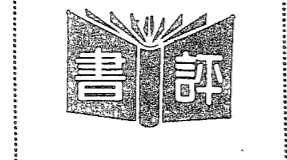


〈특별기고〉 '이야기와 談論—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S. 채트먼/한용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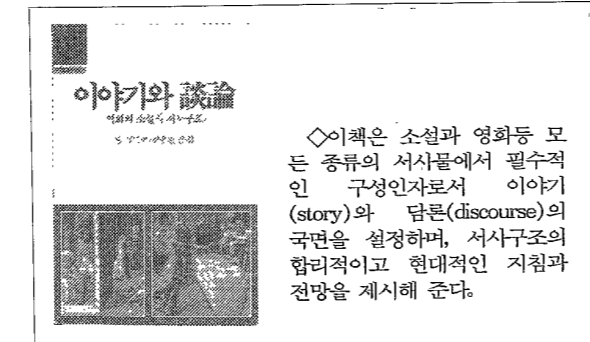
쉬운 문장으로 독자에게 다가선 문학이론

1. (서사학 Narratology)은 1970년대에 역사학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블레네 막 테등기를 지닌 학문분야이다. 그러나 서사학은 철학·심리학·정신분석학·성서학·기호학·민속학·인류학·정보이론 등 실로 다양한 인문과학의 영역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까닭은 서사학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시대와 장소로 초월해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사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든 표현물을 지칭한다. 그것은 비단 문학작품뿐 아니라 '현실이나 허구적 사건과 상황을 시간적 연속으로 표현한 것'이든 모두 해당된다. 즉 발언된 언어(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포함해서, 그림, 몸짓 등의 매체를 통해 서사들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신화, 전설, 우화, 설화, 소설, 시, 시, 역사, 비극, 희극, 추리극, 무인극, 회화, 영화, 무용, 뉴스, 광고, 일상대화 등 허구적이지 않은 사실인 간에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을 구별한 것인면 무엇이든 다.

이런 이변에 번역 발간된 세이모어 채트먼 Seymour Chatman '이야기와 談論—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는 이 미 구미 서사학 분야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책이다. 요컨대 이 책은 '영·미권과 유럽의 서사이론을 통찰력있고 객관적으로 종합해내고 있는 미국 구조주의 서사학의 가장 대담적인 저서'인 것이다.



가운데에는 서사문법이나 서사학의 심층구조보다도 이야기/담론이라는 이분법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분석과 변화양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기왕 그는 영화와 소설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세심하게 분석해내는 것, 함께 서사학의 변별점을 해명하고 있다. 즉 사건·플롯·서사구조·공간·인물·배경·발화행위·화자·화평 등을 논의한다. 이즈음에서 우리는 원래 문제이론이었던 그와-인간을 또다시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은 기본적인 이론의 틀이, 채트먼 자신도 밝히고 있듯이 '내용보다는 형식을,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해 표현 가능한 내용을 탐색하는' 연역적이고 형식적인데 기초해 있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늘 구미의 문학이론이 표적적인 유행감각에 의해 수립되었던 점을 비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다 엄밀한 사고와 기본적인 문학이론이 요구되는 오늘날 한국문학의 실정에서는 이처럼 지침서의 역할과 안내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책은 드문 경우라고 생각된다. 곧 폭넓은 안목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이 번역서는 문학 전공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화와 같은 예술 종사자들에게도 두루 읽혀야 할 책으로 여겨진다.

이 미 서사학은 우리문학연구의 경우, 고전소설의 인물유형 분석에 적용되어 (영웅의 일생 4단계)와 같은 서사원리를 도출해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고전/현대의 불분명한 시대구분과 단절론적인 시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문학연구가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이념적 영향에 의해 실천적인 사회적 중심의 경향으로 치달아 간 결과 문학 자체 내에서의 이론의 정립과 원리의 검토가 소홀히 이루어진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도 이 번역서가 주

“그는 ‘1인칭, 3인칭, 전지적 화자’의 관습이론보다 화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징적별을 중요하게 생각”

요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화자의 존재는 스펙트럼의 그것처럼 양적 효과에 따라 그 특징이 식별되고 화자의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드러난 화자)와 (숨은 화자)와 같은 구분방식을 통해, 이른바 (화자적)의 필도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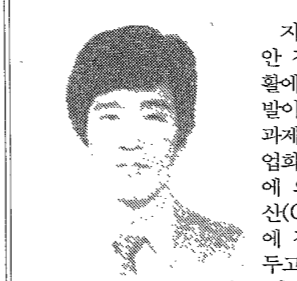
프롤이나 그레임스같은 유럽 서사학자들이 유행론에 입각하여 인물의 개념을 플롯의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로 보았으나, 채트먼은 인물을 플롯과

는 가장 큰 미덕의 하나는 단순히 지적인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문학 전공자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숙한 언어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또다른 미덕으로 보인다.

이제까지의 관례대로라

유 임 하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수료)

달하나 수강이 GNP와 국민복지



孫東辰 (상경대학교수·화폐금융론)

지난 30년 동안 정부는 국민생활에 있어 경제개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공업화와 수출증대에 의한 국민총생산(GNP)의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강력한 통제에 의해 개발을 주도하는 한편 이러한 경제성장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홍보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일반국민들 또한 GNP의 증가가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믿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은 매우 향상되고 풍요해졌다.

그러나 GNP로 본 성장에는 어느정도 성공했지만 이러한 개념의 성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증명되었다.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으나 성장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문제와 부작용이, 이미 예측되고 경고되어 온 것임에도 전혀 새롭지는 않은 대두되었다. 즉 이러한 성장은 환경오염, 자원과, 교통혼잡 등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소득 및 부의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 윤리 도덕의 타락, 범죄적 청소년 비행의 증가 등 간접적 효과를 가져와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삶, 쾌적한 생활은 아직도 멀리 있는 듯하다. 경제성장의 척도로 흔히 사용되는 GNP

우리를 바로 일시다

쓰지 말아야 할 말 안에도 좋은 서양말, 쓰지 말아야 할 서양말들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알맞은 우리말로 하는 것이 훨씬 좋고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 △라우드 스피커→확성기
△B語머스타
마스터→숙달
△주인간선의 한낱 고집성 기사에 대해 고집성→고집
△유리조항 노하우
노하우→기술정보, 비결
△모금운동 형식의 마차회
마차회→차선시장, 차선모임
△인민적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삽화, 책그림
△유화 ‘랜드스케이프’시리즈
랜드스케이프→풍경연속물
△21세기를 디자인한다
디자인→설계
△전수주변에는 일종의 정크스가 있는데
정크스→불필한 일, 제수없는 일
△서민문학을 한 장르로 개척했다.
장르→개념
△이런이 5천원으로 서울랜드 정복!
서울랜드→영어를 결합시킨 밀턴데 이들이 노는 공원의 이름 정도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적해갈 차원 넘어 문학전공자들과 이에 유관한 독자들과의 사고에 엄정한 논리의 틀 제공”

이나 서사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언어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점유한다. 그 까닭은 언어야말로 인식과 사고의 주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학은 주된 목표를 이와 같은 서사학의 구조와 기능을 탐색하는 작업에 둔다. 여기에는 물론 프랑스 구조주의 문학이론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와 러시아의 형식주의, 독일의 기호학, 미국의 화학과 심리학 등이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즉 소쉬르와 멜로슬레프, 노암 촘스키, 노암 아모스 등 언어학자와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로망 야코브슨, A.그레임스, 클리야 크리스티아나와 같은 프랑스의 구조주의자, 쉬클로스키, 프롬, 바흐친, 로트만 등의 슬라브 계열의 학자, 페

엄밀한 사고와 이론요구에 도움주는 지침서 영화와 소설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분석

이 미 발간·소개된 제랄드 프레스의 '서사학—서사학의 형식과 기능 (문학과 지성사, 1988 발행)'이 그레임스류의 기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언어학의 이론에 대한 분석이론, 채트먼의 작업은 미국 특유의 학문적 기법—즉, 최근 북미에서 대두하고 있는 영화학, 아랍슨의 기호학이론, 역사학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관찰과 통찰력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유럽 서사학과 북미 서사학의 통합을 시도하는 가장 큰 특징

동학의 모든 구성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동학인들이여! 우리 모두 오늘의 동학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만족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젊은 시절을 우리는 동학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피를, 우리 모두 동학의 발전을 위해서 동학이 펼쳐 일어나는데 밀거름으로 써야만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느 한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대히이 발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성하고 있는 모두가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이 정말 해야 할 소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고쳐하면서 이를 묵묵히 실천해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때에 비로소 학교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계단축과 학교교,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학교의 현실을 절실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동학의 각 주체들에게 몇가지의 기본적인 것을 호소합니다. 첫째, 우리 동국대학 모두는 민화분위기 조성을 통한 학문적 실력배양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 민족사학을 자처하는 타대학 학생들과 경쟁당당히 실력을 겨루어 뒤지지 않을 만큼, 우리 스스로 연마해야 하겠습니까. 그들만큼 각종 고시와 시험에서 우리도 합격해야 할 것이고, 그들 도서관 만큼 우리의 도서관도 긴장하고 학구열로 뜨거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합니다. 도서관의 학구열의 성장이요, 실력배양의 산실입니다. 도서관 주위에서의 일련의 집회활동, 도서관 내에서의 소란과 타인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고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대중의 상징인 총학생회도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형식적인 활동과 문제제기위주의 태도 그리고 정치적 투쟁에 편중되어져 있는 현재의 정책들을, 좀더 내실있고, 문제해결위주의 접근방식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노선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학이 계급혁명을 위한 몇몇 학생들의 기구가 아니고, 이른바 불평등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모든 학생대중의 주체적 기구라면, 이제 스스로의 혁신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단은 더 이상 우리의 동학을 제단내의 내분이나 이권분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들을 즉각 중지하고, 원만분자의 상징이자, 아니라 유익의 증진학교 본교에 대해 과감하게 혁신적인 투쟁과 지원으로 도와준 중흥의 기반을 다져야만 합니다. 지금의 동학과 계단의 모습에 대해서 동국대입시의 우리의 많은 선각자들과 고승들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실가에 대해서 후 생각에 보신적이 있는지요? 더 이상 그분들에게 율분과 분노를 느끼게 하지 않으려 하고 싶습니다. 권리는 있으나 책임이 없는 계단축의 전횡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측도 학교 및 학사행정의 폐쇄적 운영과 권위적 습성에 의한 무사안일적인 교내 행정의 관리태도, 오늘의 시점에서 발전과 개혁을 위한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고, 교수님들도 성의있고 질 높은 강의와 동국대학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모색에 주체적으로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제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결코 학생들에게만 그 원인이 있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아직까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제 계단축이나 학생들, 학교측 모두가 책임회피하지 않고 각자의 뼈저린 반성이 기초가 된, 제2의 동국중흥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족사학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때입니다. 우리모두, 떨쳐 일어납시다. 민족 동국이여.....!

—동국사상 84년 5월9일 서울캠퍼스 경영학과 4학년 84학번 일동—

동학의 장터 (Donghak Market)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events and performances at Seoul Campus, including a 5th anniversary event, a play, and a concert.

동학광장은 전통적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주위의 일들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동대신문사 동학광장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동학광장에 실리는 광고는 광고료가 없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식당음식 더이상 못먹겠다"

직영화로 소비조합 건설 토대 마련해야 학교당국 지원책 - 학복위 노력 요구돼

기획취재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상훈·관광영)에서는 지난달 2일 '학생의 권익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내 전반적 복지상황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학복위)에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생회관매점적영역에 따르는 업무수행 학복위 개혁, 복지와 건설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내용으로하는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식당가적 현실에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음식의 질에대해 91.8%가 불량함을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내프킨비치, 환풍기 설치등의 환경개선 필요하다는 50%이상, 정식의 반찬 질이 나쁘고 맛이 없다는 50%등으로 나타났다.

식대인상및 가격조정을 두고 학복위와 식당측과의 4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지난달 27일 음식의 질적보장및 휴게실내 환경개선의 조건으로 지난4일부터 식대가 인상조정 되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정식이 5백50원에서 1백50원이 오른 7백원으로, 최고가격과 만우국이 5백원에서 6백원으로, 비빔밥은 5백원에서 6백50원등 전반적으로 20~30%정도 인상되었다.

학복위에서는 식대의 질적 조건으로 환풍기설치와 음식의 질적보장을 약속받았는데, 전구내식당에 일반대사용(1백)이 결정되었다.

또한 학생회관 식당은 매뉴류표시판 부착, 환풍기 설치, 음악시설 설치, 식판교체, 아르바이트 학생 증원(현재 남학생

1명에서 남·여학생 각1명씩 증원) 등이 조건이며, 도서관 식당과 진흥관 식당은 쓰레기통 설치, 내프킨 비치, 조명개선, 기타 위생시설 유지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개선및 음식의 질적보장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식대인상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증진의 정부비 사용에서 일반비를 사용하는 것 이외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견해이다.

다구나 이에 대한 공교나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식대가 갑자기 인상되어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에 학복위의 좀더 신뢰되고 장기적 안목을 갖춘 사업추진이 요망된다.

그리고 지난달 11월 추진되어 지난달 21일 예정운영자인 김덕수씨로부터 인수받아 학복위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적영화된 학생회관매점은 학복위의 목표인 학생소비조합 건설을 위한 물적토대를 마련한다는 데서 그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학복위는 현재 시설보완, 조명, 환경개선의 준비작업을 대체적으로 마무리 했으며 이번학기내로 학생회관매점안에 공간을 할애 안경, 양복점, 화장품, 양화점등 생활에 필요한 점화점을 공개입찰 후 임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부터 학복위에서 적영화한 음료수 자동판매기는 음료 종류의 단순, 기계의 잦은 고장등으로 평소 학생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다.

학생회관, 도서관, 진흥관등에 비치된 자판기는 커피자판기 9대와 음료자판기 6대로 총 15대이며 학생회관매점 적영화로 4대(커피, 음료)가 새로

배치케 커피, 콜라, 주스등 종류가 다양해져 이용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있다.

한편 각 건물3층 여학생 화장실에 설치된 휴지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여학생회에서 운영중인데 커피·음료수자판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마구 두드려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많으며 심한 경우 자동판매기를 부수어 불용을 끼치는 경우도 생기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며, "기계고장으로인한 피해발생·즉시 환불해 사용자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또한 이용학생들 역시 자판기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학생들의 주인의식을 당부하기도 했다.

본교 복지 장학금은 커피·음료자동판매기 이득금 3백30만원(지난학기)으로 066명경 지급될 예정이며, 휴게실·식당

임대비의 1천1백76만원에서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7백20만원이 90년 1학기 단과대별·학과별로 1명씩 총장복지장학금으로 오는 5월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교재구입시 학생들의 편리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내서점은 보증금 2백만원에 한달 임대료로 15만원 받고 있으며 10%할인 가격(전공서적 3%)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도서 구비, 공간확장및 할인을 확대 등이 요망된다.

또한 여학생들의 휴식공간인 여학생 휴게실이 있지만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않아 이용하는 학생이 매우 드문 것도 시설의 빈곤을 나타내는 한 면이다.

그리고 지방캠퍼스 특성상 장·단거리 통학생들을 위해 저주 체계되는 학교버스 운영

은 현재 3대의 학교버스로 아침·저녁 2번에 걸쳐 교수·직원 출퇴근으로만 이용되고 있을뿐인데 학교측의 적극적인 투자로 통학생의 등·하교시 불편을 덜어 줄 것이다.

보건소의 경우도 학생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건강상담 및 진찰, 의약품 구입과는 거리가 멀고 가벼운 철과상이나 두통등 작은 치료에나 이용될 뿐, 약품의 부족과 인력(현재의 의사)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만연되어 있는 복지시설 부족, 위생시설 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기구로서 힘있는 학복위의 활동과 아울러 학교체단의 적극적 투자만이 해결 가능하다.

또한 학생뿐 아니라 학교·교직원 모두가 학원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학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형숙 기자)



1년과대협 농성 해제 부총장 면담 위해 일시적 후퇴

신입생 입학금 9.8%를 공제한 금액환불, 등록금 연동제 적용등을 요구하며 전면수업거부와 중간고사 연기를 결의, 지난달 26일부터 제기농성에 들어갔던 1학년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농성을 해제했다.

이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지역개발 대학원장에서 열린 김홍길 부총장 권한대행 및 3차장, 1학년 과대표협의회장 박대성(경제1) 군등이 참석한 면담

이 결정됨에 따라 경제학과등 중 28개학과가 각 과별로 총무과, 학생처장실등 학사행정부서에서 농성을 하다 지난 1일 면담을 앞두고 농성을 해제했다. 지난 1일 오후 3시 대학원 학생회실에서 1학년 과대표협의

회 대표 2명, 서울캠퍼스 자치협의회의 최정, 김부총장 권한대행, 최정희 기획조정실장, 총무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이 있었으나 시정현황로 내역 공개만 결정된채 또다시 결과됐다.

현중사수·민자당 타도 영남지역 학생진군식서 결의

'현대중공업 파업사수 및 민자당 타도를 위한 영남지역 청년학생 진군대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대구 경북대 대강당에서 본교생 1백여명을 비롯한 영남지역 학생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 연합과 부산·울산지역 총학생회 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진군식은 대경총련 정세국장 박철수(경북대)의 현대중공업과 마산·광원탄광을 중심으로 한 현 정세분석, 현대자동차 하부영 사무국장의 울산 현·자 및 현대 단위계열사 상황보고, 정세대 총학생회장 최성준의

부산·울산 상황보고, 대경총련의장 정병관(경북대 총학생회장)의 영남지역 청년학생 진군결의문 낭독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경점거농성관련 권운수·제복기구속 지난 대구적합시 경찰국정거·농성과 관련, 본교 '학생투쟁본부'소속의 권운수(철학3)군과 제복기(행정3)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화염병 불펜소지, 집시법위반, 불법 유인물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10일 대구 교도소로 송치됐다.

'동국의 민주발전 위한 합의' 결렬 건의사항 - 합의문 명칭대립으로

현 학내상황 해결 모색을 위한 학교당국과 제22대 총학 대표자간의 제16차 모임이 지난 9일 오후 8시 동국대(대학원 제1회합의실)에서 열렸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그동안 학교당국과 상충교섭을 통해 이날 등록금 환불등 현안문제에 관한 최종 합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협상 타파에서 학교당국은 '동국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동국의

민주적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으로 할 것을 주장, 학생회와의 팽팽한 의견대립속에서 타결직전까지 갔던 합의문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이날 합의직전까지 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예산과 등록금 공개에 관한 문제

①신입생 입학금 사용내역과 시험전행용 사용 내용을 포함한 90년 예산안을 5월20일까지 공개한다.

②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책정및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는 3차연석회의에서 사안에 논의한다.

③편성된 예산안은 4월중으로, 전년도 결산안은 5월중(이 사회의 결산 승인)이 끝나는 대로)으로 3일이상 공개한다.

2. 기존 합의 되었던 8개항 위원회의 정상화에 관한 문제

①88년 합의 시행된 교과과정 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학교측 대표는 5월15일까지 선의하고 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중앙 교과과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학교당국은 성실히 이행한다.

③학술 진흥연구회를 중앙교과과정위원회에 지급한다.

3. 신입생및 공대, 예대 등록금 환불에 관한 문제

90년 예산안이 이미 제안에서 심의를 마치고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당국에서 제시한 등록금 환불액은 환불하고 학생측에서 제시한 인상상환액은 복지문제에 사용토록 한다. (경주 환불분은 등록금환불 복지문제 해결에 사용)

4. 재단 전입금 확보를 위해 재단, 학교당국, 학생은 공동 노력한다.

이하는 학우들의 반응이 환영과 격정스러움으로 대조돼

연유인 즉, 대동제 기간이 5:18:50로 주간에 걸쳐 이 제까지의 酒祭(?)분위기를 이어, 5:18:50명들을 어떻게 추모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있어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한 속 제 분위기를 염려하기 때문

이에 학우 시해오던 물나리금님이 요즘 소원고 외양간 고지느라고 한창 부산을 뒹고 있던데.

현대중공업공권력투입, KBS민주화운동탄압등 여러 모로 맹활약(?)을 보여 과연 "물은 끓이다"는 평을 들어 이에 절 대결명의 난 국이라며 집 쭈서 농성공권력을 투입하더니 무으로 또 무슨

법값 폭동(?)

○...풍문으로만 들던 '불가폭동'의 여파가 온방골에 도 미쳐 하루밤 사이에 밤 값이 정중되었다고.

학생복지위원회와 식당측이 지난달 27일 '밤값협상' 이후 한창의 대자보나 공고 없이 실책(?) 지난 4일 온 방골내 밤값이 일률적으로 20~30%위아니 올라 값에 맞춰 식사하려했던 온방골은 '발집을 들릴수밖에 없었다고.

'조식한마당' 일정 확정 15일부터 5월혁명계승제등 행사 다양

경주캠퍼스 '조식한마당'이 5·18광주항쟁기간 중에 열린다. 축제준비위원회(위원장=백대진·영문4)에서는 지난달 23일 '조식한마당'기간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로 발표했는데 일정을 살펴보면 ▲15일(부정의 날)=전야제(오후5시~7시 30분, 1부 개막식 1부 입학기요제, 분무관), 공역전여사출 공연(오후3시30분~5시, 7시30분~9시 2회공연, 분무관, 여학생회) ▲16일(자유날)=5월제 개막식(오후1시~2시,

교문장승), 언론출판회의회 발족식및 민주투사 7종경기(오후2시~3시, 녹야원), 밀양백종놀이(오후3시~4시30분, 교내사거리, 발매), 올셀·한터올공연(오후5시~6시30분, 오후8시~9시30분 2회공연, 분무관) ▲17일(민주의 날)=전통혼례식 (낮12시~오후1시30분, 녹야원, 동아비엔날레), 5월혁명계승제(오후1시30분~3시30분, 녹야원), 연흥제(오후6시~10시, 분무관, 여학생회) ▲18일(자주날)=차진놀이(오후1시~2시, 교내사거리), 백상연 및 '조식한마당' 폐막식(오후6시~10시, 분무관 및 녹야원) 등이 열릴 예정이다.

문화운동 연합 노래공연(낮2시30분~오후1시30분, 분무관), 5·18유가족 초청공연(오후1시30분~2시30분, 녹야원), 영화'오! 꿈의나라'상영(오후3시~4시30분, 분무관), 광주순례단 출정식(오후5시~6시, 녹야원), 연꽃제(오후6시~10시, 분무관, 여학생회) ▲19일(민족해방의 날)=차진놀이(오후1시~2시, 교내사거리), 백상연 및 '조식한마당' 폐막식(오후6시~10시, 분무관 및 녹야원) 등이 열릴 예정이다.

성 명 서

"자유언론의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하라"

사천만 민중의 가슴에 살아 민중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올바른 민족사를 창조해야 할 언론이 정권의 군화발에 짓밟히는 각급의 현실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는 치명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2일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사 KBS에 경찰병력이 난입한 가운데 서기원사장이 취임하였으며 언론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권력을 투입시켜 언론을 제창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6일 법정수당 지급문제의 관련한 KBS 고위 경영진의 사표제출과 이에 대한 KBS이사회 면직 등의 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영훈사장의 사표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권력에 의한 방송제창악의 음모가 고도의 정치공작차원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27일자 일간신문에 확대 왜곡 보도된 KBS 수당지급 파문은 감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과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 소재의 규명도 없이 범법적행위처럼 여론을 조작해 왔으며 87년 6월항쟁 이후 더욱 가속화된 방송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암울했던 역사로 되돌아가려는 급박한 상황이라 하겠습니까.

이에 우리 영남지역대학신문기자들은 백만학도와 더불어 KBS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규명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기원사장과 최병렬공보처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서사장은 3, 4, 5, 6공화국을 거치면서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사장 등의 요직을 맡아 광주민중항쟁을 왜곡 보도하는 등 그 기만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경찰병력을 투입시켜 취임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최장관은 이번 사태가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선과정은 KBS의 이사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된 불법행위이며 서사장과 최장관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즉각 퇴진함으로써 현재의 KBS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 재장악 음모 및 공권력 투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정부는 권력차원에서 방송구조 개편을 구체화하였는데 전국단위의 민방시설, KBS의 조직 및 채널 분리, MBC의 민영화, 네트워크체제 해체를 통한 지역방송화, 유선방송 조기 도입등 KBS의 각 기능을 분리시켜 통제하는 방송장악 음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이 음모를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언론은 더이상 권력의 시녀가 아니며 전국민과 함께 언론자유의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KBS는 어느 개인이나 정부의 소유물이 아닌 바로 전국민의 양심인 것입니다. 그동안 권력의 시녀로 전락, 진실을 왜곡·편파보도를 강요당해 왔으나 이제는 더이상 굴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과를 불모로하여 언론을 제창악하려는 정부의 음모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제는 그 암울했던 역사의 도가니로 빠져들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민주화의 그날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KBS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나 진정한 민중방송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영남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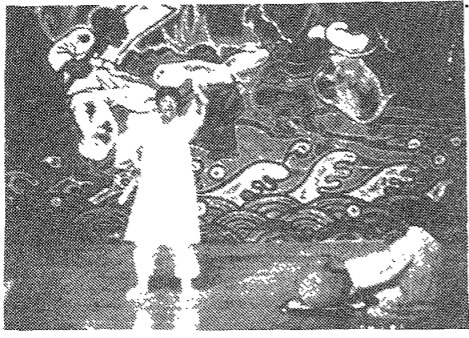
핏빛 선언한 오월, 소리에 담아

—광주항쟁 10주년 추모 창작판소리 '5월, 광주'를 보고

지난 5월2일부터 5일까지 예술극장한마당에서는 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광주항쟁을 서사적으로 형상화 한 광주항쟁10주년추모 창작판소리 '5월, 광주'가 세마치, 자진모리, 증중모리의 장단으로 어우러져 신명나는 판소리 한 마당이 벌어졌다.

"이때는 어느때고 일천구백팔십년...."이라는 아나리로서 판소리는 막이 오른다.

5월18일 계엄포고 확대조치부터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도성을 되찾



◇지난 85년 제주도 초청공연 '동바다'의 한장면.

80년 광주항쟁을 서사적으로 묘사 관객과 광대가 하나되어 어우러져

는 장면까지가 첫편을 이루고 있고, 청년지도부들과 시민들이 지키고 있던 도청이 공수부대에 의해 침략해 짓밟히기까지가 둘째편을 이룬다.

출항이나 심정가들의 판소리만을 들은 경험으로 볼때 광주항쟁의 사건을 어떻게 판소리로 꾸밀수 있을지 의아해하던 공중중은 판소리가 무르익어 감에 따라 소리를 하는 광대와 하나가 되니 자연 풀리는 듯 싶었다.

광대 입전까지는 "소리라는 것은

판대흔자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대를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눈앞에 장면을 그려낼수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공연 시작전 관객들에게 동참하는 판소리가 될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추신에 몇마디를 슬쩍 일러준다.

관객들은 흥이나고 흥올때는 '일제구, 좋다, 잘한다'대문 슬프고 동탄스러운 대목이 나오면 '그러지, 어이디, 으음...'등의 일러준 추입세를 같이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된다. "이이고 이게 누구여, 내세끼가

죽었다, 잊고게 나간뒤 소식 없이 행여나 마음 졸였는데 이름풀이 웬일이냐 말아"라는 도청앞 분수대에서 자식의 시체를 확인하는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증중모리에 실어 읊을 때는 관객도 목이메어 어쩔줄 모르며 마치 광주도청앞 분수대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소리 중간중간 '꽃잎처럼 금남로에...'의 5월의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의 광주항쟁가를 관객과 광대가 한목소리로 노래했으며,

도청앞 분수대에서의 성토에 비가 내리던 장면묘사와 함께 광대입색의 '남도에 내리는비'의 구슬픈 가락은 가슴 밀바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원지 모를 불꽃함을 느끼게 했다.

2시간동안 '광주 열흘간' 상황을 목이터져라 신명나게, 때론 처절한 목소리로 읊어대는 광대 입전까지는 광주항쟁장시 청년지도부중 한 사람이었던 故은상원열사와 절친한 벗이며 70, 80년대를 대표하는 마당연극 연출가이기도 하다.

"...시민들 하릴없이 죽어가는 통에 회부연 연가속으로 새벽이 동터오는구나"로 끝을 맺는 '5월, 광주'는 광주민중항쟁10주년을 맞는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금 불을 당기기에 충분한 의의였다.

"이 작품을 광주민중항쟁 당시 원동력 가신 영령들에게 바칩니다"라고 말하던 입전까지. 다시 '5월 그날'은 돌아오고 있다. 핏빛선언이었던 그날이후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으며 무엇을 해 놓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보아야 한다.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려다 산화해간 영령들의 피가속이 헛되지 않을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우리 모두 다짐해야 할것이다. 이 5월에... (최 율옥 記者)

—개교 기념일에 이땅의 유일한 빨래터여

큰 어른 계시는 큰 방에는
늘 법문이 넘쳐흐르고
법복마다 봉독하는 반야심경에는
협없이 도는 불레같은 가락이 있어

새끼줄을 꼬듯
그 바퀴를 따라가면
이 땅이 하나되게 한 맘으로 손모
으면
즈문 해 전의 스님들도 보이는 듯
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화랑들도 보이는
듯하고,

碩學들의 강의실은
무명의 그리매를 씻어라치는
때에 절은 교부의 학생들로 그득하
다.

한 티끌이 세계를 머금었고
우주는 그 티끌 속에 모두 다 들어
있어

더욱 더 빛을 내는,
大放廣의 지혜를 공부하는 아카데미

이곳을 거처가는 이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이곳을 두드리고 가는 이마다
옷 매무시를 잘 해내는
이 땅의 유일한 빨래터여
이승의 마지막 의지처럼

市井의 옷을 입고 모처럼 찾아보면
가쁜 숨을 들리고
웃을 벗으리신다

스승님 편지를 풀어서 내리우면
가장 맑은 물결속을 거닐다 온 것
같고

뒤門 아래서 내 옷깃을 만져보면
훈훈한 향내음이 배어 흐른다.

고 영 섭 (불교대 불교학파)

'설한령의 세처녀'라는 북한영화가 지난 4월27일 평화문우체국6층 북한문화관 정보자료센터 시청각실에서 상영됐다.

지난 3월30일 '참된사랑'이 처음 상영된 후 두번째로 상영된 이 영화는 1985년작으로 백두산이 눈앞에 보이고 사방은 설원으로 장엄한 설한령에서 순정, 유란, 영숙 세 처녀가 그곳 벌목공들에게 '당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들 세 처녀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학교를 갓 졸업한 후 처음에는 각기 다른길을 가려하지만 결국 뜻

영화합작부터라도 북한을 알고 보게

—북한영화 '설한령의 세처녀'를 보고

어느덧 뒷년이 흘러 세처녀는 결혼을 생각할 나이에 이른다. 마침 순정은 벌목장에서 일하던 석진이란 청년과 좋아하게 되어 드디어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고 하루는 석진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뜻밖에도 석진은 냉담하게 나온다. 그는 순정에게 "나는 순정 동무가 당의 뜻을 받들어 험한 눈길도 마다않고 열심히 우리에게 당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그 열정을 사랑한 것이지 다른뜻은 없었소"라 며 순정의 마음을 단호히 거절한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순정은 얼마간 방황을 하게되고 설한령을 떠날 생각까지 하지만 다시 생각을 고쳐먹은 순정은 자신이 해야할일은 역시 당의뜻을 전하며 사는 것이라고 결심, 다시금 설원을 향해 재배낭

남자보다도 억세게, 오직 '당의뜻'을 충실히 전한다는 일념하난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다소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정치성을 대외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생각했던 김일성사상만을 선전해나오는 영화도 아니었고 어쩌면 좀 애매모호한 작품인듯 싶었다.

상영이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만큼 영화가 흥미롭지 못했다. 그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관람을 했던 한 노인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도 없었다"며 "괜히 시간들여 왔다고 까지 후담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아마도 영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북한을 느끼려 했던 이들의 '기대감'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인듯 싶었다. 물론 영화한편으로 40여년이 넘게 단절된 북한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 남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북한실상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느낄수 있게 해준 영화는 못되다고는 분명하다.

또한 영화를 관람하는 자적인 미리 선정한 사람에 한하는데 한계

역경극복해 '당의 목소리' 전하는 과정 그러 상영횟수-관람자격제한으로 인식공유 폭좁아

올모아 설한령의 벌목공들에게 당의 뜻을 전해주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이들은 신문과 도서를 손수검토미터의 눈높이 신숙을 결여서 3-4년간 매일같이 벌목공들에게 전해주며 함께 토론을 벌이기도 하면서 그들의 정신적 학습과 무장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뜻밖에도 석진은 냉담하게 나온다. 그는 순정에게 "나는 순정 동무가 당의 뜻을 받들어 험한 눈길도 마다않고 열심히 우리에게 당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그 열정을 사랑한 것이지 다른뜻은 없었소"라 며 순정의 마음을 단호히 거절한다.

을 메고 힘차게 나아간다. 이 영화를 보면서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은 우리가 흔히 대외했던 영화에서 느낄수 없었던 '여성의 행동방식'부분인것 같다.

눈물인 산을 몇시간씩 짊어지며 채이던 신문은 전달하면서 힘들어하거나 지쳐하는 모습없이 오히려

영화합작부터라도 북한을 알고 보게

북한영화 '설한령의 세처녀'를 보고

남자보다도 억세게, 오직 '당의뜻'을 충실히 전한다는 일념하난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다소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정치성을 대외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생각했던 김일성사상만을 선전해나오는 영화도 아니었고 어쩌면 좀 애매모호한 작품인듯 싶었다.

상영이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만큼 영화가 흥미롭지 못했다. 그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관람을 했던 한 노인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도 없었다"며 "괜히 시간들여 왔다고 까지 후담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아마도 영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북한을 느끼려 했던 이들의 '기대감'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기

지옥같은 현실

▲천 국이나 지옥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부대끼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새삼스레 깨우치고 있다. 사회구조의 모든 조건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락왕생을 누리게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괴롭기가 이수 라지속보다 극심한 행련이니 그러하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지옥같은 현실이 사달라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않은 사람보다 엄청난 나게 더 많다는 사실도 '인간다운 삶의 맛이 나는 세상'을 그리워 하면서 성실하게 살던 또 한사람의 짧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말았다. 환원이 되더라도 영원히 '통일'의 자본가들과 싸우고 싶으니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 한줌의 뱃가루라도 뿌려달라

▲천 국을 오하려 확대·강화하려는 몸부림을 자본가무리와 파소무리를 여의지 부리고 있었다. 그 역시 허여준 사건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한줌도 안되는 적은 무리들의 천국이요 거의 모든 민중들이 천국에 갈수없고, 땅끝이 된 고추밭에 농약 마시지 정계에 놓인 생지옥이라해도 틀린 말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이상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열사들의 죽음은 우리 청년학생과 노동자·농민의 가슴에 고인 '기름바다'에 불을 당기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저들에게 우리 것을 되찾기 위해 이제까지는 패배하였으나 뒤돌아볼 것 없이 노동계급 민중해방의 빛나는 길밖 없고 고난의 행군을 나서야 한다고 일깨우고 있을 때이다. (酒)

새로나온 책들

민족해방운동사 연구
역사문제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반 지음
이 책은 우리 민족해방운동사가 그동안 판본 보수적 역사학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왔고 애국적 모습 그대로 일반인에게 전달되어 왔으며, 또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형성된 진보적 역사연구자 사이에도 시각의 편차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위해 만들어졌다. 총론 1편과 13편의 각론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 민족해방운동사의 연구현황과 진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역사비평사·6천8백원)

지역자치의 이론과실제
조창현 지음
이 책은 4편을 거듭했지만 일문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이어 실제의 운용과 이론을 깊이있게 해설하고 있다. (동아일보사·3천7백원)

천안문광장
백재연 역
이 책은 중국본국에서도 출판되지 못한 문예적으로, 모택동에 찬성으로 한 권력의 핵심 인물 주은래, 유소기, 임포 왕홍문, 강정등의 권력의 입부와 은밀한 사생활·여성권력 등 정치가의 필살을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으로 현대중국 정치문화의 최고 걸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작자인 유이주는 현역군인 작가로서 군사 및 중국정치사회를 배경으로 한 문제작을 거듭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아일보사·5천원)

업사상
이태영 정양숙 옮김
이 책은 사가 권승의 (업사상)과 마스다니 후미오의 (업과 속업)을 한권으로 엮은 것이다. 동양의 장래의 커다란 과제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지성의 보완이고 사상은 영혼의 회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동양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그 안에서 보편적인 합리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과학적인 지성으로 조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업사상'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대원정사·3천원)

창살가의 햇빛
오수강 지음
이 책은 소위 동학당 사건으로 1968년에 무오되어 무기수로 20년간 옥에 갇혀 살았을 아버지에 게 딸 오수강이 16년간 보낸 편지를 모은 것이다. 무기수 이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존경을 실은 편지들에 담긴 성장과 상처, 그리고 침묵한 결과의 미지 일과 가치와 열매와 꽃과 등지와 용의와 상처까지 함께 지는 한그루의 나무와 같은 성장기록은 감동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한없이 감동케 한다. (햇빛출판사·3천5백원)

남북한문학사연표
한길문화 편집위원 엮음
분단 45년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저마다의 미학적 가치체계를 쌓아왔다. 1970년대를 고비로 남북한 문화예술의 이질화는 그 절정에 이르렀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민족적 동질성으로 귀일하려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책은 이제까지 단절된 별개의 체계와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어왔던 분단문학의 전체적인 시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한길사·5천원)

이야기와 談論
한용환 옮김
이 책은 모든 종류의 서사물을 분석하는 중심원리를 이야기(story)의 국면과 담론(discourse)의 국면으로 두면서 '서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현대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기존의 견해들에 대한 개요를 수직 하키보다는 소설을 해명하는 일대이 서사학과 구조시학이 거둔 성과를 거의 완벽하게 요약함으로써 문학학자를 하나의 이론적계로 불발는데 지침이된다. (고려원·4천5백원)

전통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임재해 엮음
안동대신본 사기자들이 만든 주제에 따라 관련분야 저명인사의 자문을 구하고 도서판의 자료를 참고하는 동시에 현장까지 찾아가 취재를 하여 원고를 작성함으로써 대학원의 탐구정신과 기자로서의 취재정신을 함께 살려낸 글이다. 전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조상의 전통문화들을 한데 묶어 우리지역 문화의 발전취를 밝히고, 그발자취를 통해 오늘로 이어지는 문화의 주제성을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안동대신문사·비매)

행촌동의 패랭이꽃
신상성 지음
저자의 3번째 장작집인 이 책은 행촌동 패랭이꽃·도복맞은 금메달·늑대와 풀꽃 등 9편의 작품이 실려있다. 사 회교발문학으로서 반사회적인 모든 군중들이 동원된 이작품에서는 특히 지식인들의 허위와 위선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데 그러한 묘사의 밑바닥에는 뜨거운 인간애를 깔고있다. 독자들에게 예 사느냐 하는 존재문제를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가치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준다. (경문출판사·3천7백원)

나그네의 수첩
권기호 외 엮음
이 책은 호성여대대학원장 최정석 박사의 정년퇴임을 맞아 문단의 후학들이 뜻을 모아 만든 기념문집이다. 문필가로서 많은 글을 써왔는데 책 제목인 '나그네의 수첩'은 10편의 추수중의 하나이다. 시와 시조, 소설, 수필, 평론의 전 장르로 뛰어난 이력에는 최정석 박사의 인품이 작품속마다 그윽한 향기로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루·비매)

지역자치의 이론과실제

조창현 지음
이 책은 4편을 거듭했지만 일문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이어 실제의 운용과 이론을 깊이있게 해설하고 있다. (동아일보사·3천7백원)

천안문광장

백재연 역
이 책은 중국본국에서도 출판되지 못한 문예적으로, 모택동에 찬성으로 한 권력의 핵심 인물 주은래, 유소기, 임포 왕홍문, 강정등의 권력의 입부와 은밀한 사생활·여성권력 등 정치가의 필살을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으로 현대중국 정치문화의 최고 걸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작자인 유이주는 현역군인 작가로서 군사 및 중국정치사회를 배경으로 한 문제작을 거듭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아일보사·5천원)

업사상

이태영 정양숙 옮김
이 책은 사가 권승의 (업사상)과 마스다니 후미오의 (업과 속업)을 한권으로 엮은 것이다. 동양의 장래의 커다란 과제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지성의 보완이고 사상은 영혼의 회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동양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그 안에서 보편적인 합리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과학적인 지성으로 조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업사상'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대원정사·3천원)

창살가의 햇빛

오수강 지음
이 책은 소위 동학당 사건으로 1968년에 무오되어 무기수로 20년간 옥에 갇혀 살았을 아버지에 게 딸 오수강이 16년간 보낸 편지를 모은 것이다. 무기수 이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존경을 실은 편지들에 담긴 성장과 상처, 그리고 침묵한 결과의 미지 일과 가치와 열매와 꽃과 등지와 용의와 상처까지 함께 지는 한그루의 나무와 같은 성장기록은 감동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한없이 감동케 한다. (햇빛출판사·3천5백원)

남북한문학사연표

한길문화 편집위원 엮음
분단 45년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저마다의 미학적 가치체계를 쌓아왔다. 1970년대를 고비로 남북한 문화예술의 이질화는 그 절정에 이르렀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민족적 동질성으로 귀일하려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책은 이제까지 단절된 별개의 체계와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어왔던 분단문학의 전체적인 시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한길사·5천원)

이야기와 談論

한용환 옮김
이 책은 모든 종류의 서사물을 분석하는 중심원리를 이야기(story)의 국면과 담론(discourse)의 국면으로 두면서 '서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현대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기존의 견해들에 대한 개요를 수직 하키보다는 소설을 해명하는 일대이 서사학과 구조시학이 거둔 성과를 거의 완벽하게 요약함으로써 문학학자를 하나의 이론적계로 불발는데 지침이된다. (고려원·4천5백원)

전통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임재해 엮음
안동대신본 사기자들이 만든 주제에 따라 관련분야 저명인사의 자문을 구하고 도서판의 자료를 참고하는 동시에 현장까지 찾아가 취재를 하여 원고를 작성함으로써 대학원의 탐구정신과 기자로서의 취재정신을 함께 살려낸 글이다. 전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조상의 전통문화들을 한데 묶어 우리지역 문화의 발전취를 밝히고, 그발자취를 통해 오늘로 이어지는 문화의 주제성을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안동대신문사·비매)

